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73호
2025년 06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미주동창회, 모교와 ‘윈윈’ 파트너십 맺는다 선발 장학생들, 내년부터 서울대 국제 하계 프로그램 보내기로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가 올해 선발 장학생들을 내년 서울대 국제 하계 프로그램(SNU ISP)에 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평의원 회의에 참가하는 모교 유흥림 총장이 미주동창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갖는다.

모교로서는 미국 최고 명문대에 다니는 인재 영입을 통해 서울대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미주동창회로서는 장학생들이 자연스레 서울대 일원으로 유대감을 갖고 서울대 출신 미국 사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 서로가 윈윈하는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들어 모교에 대한 미주 동문들의 기부가 크게 늘면서 미주동창회와 모교의 교류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이번 장학생 프로젝트와 같이 지속적이고 서로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미주동창회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한홍택(공대60·UCLA 석좌교수) 장학위원장은 “올해부터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지원 자격을 내년 여름 서울대 국제 하계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부할 수 있는 한인 대

모교 “글로벌 인재 영입 통해 학교 위상 높여”
동창회 “장학생을 자연스레 서울대 동문으로
유흥림 총장, 6월 평의원 회의서 축하 행사

학생으로 못을 박았다”고 전했다.

한홍택 장학위원장은 이에 대해 “출중한 학업성과 비전이 담긴 에세이를 통해 미국 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인 학생들이 서울대 국제 하계 프로그램에 참가해 함께 공부하면서 서울대 동문과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고 동문 선배들이 멘토가 돼 자연스레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에서 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학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원 학생들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는 8월31일 장학생 선발 공고를 내고 10월31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아 내년 1월 15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미주동창회 장학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제17대 노명호 미주동창회장 때 시작됐다. 미 전역의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1만 달러의 장

학금을 지급했는데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명씩 선발했고 2024년에는 기금 부족으로 5명으로 줄었다.

지명 장학금제로 운영돼 2024년에는 이상강(의대 70) 미주동창회장을 비롯해 미시간의 고광국(공대 54)·고국화(공대 56) 동문 부부, 남가주의 노명호(공대 61) 동문, 한홍택 장학위원장과 부인 백훈(미대 61) 동문,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는 삼익약기가 각각 1만 달러씩을 기부해 기부자 이름으로 기부 취지에 맞춰 5명을 선발할 수 있었다.

미주동창회가 6월 평의원회의를 앞두고 모교와 장학 프로그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장학 프로그램을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황효숙(사대 65) 차기 미주동창회장의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황효숙 차기 회장은 “평의원 회의를 준

비하면서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와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고 이재욱 본부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논의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일회성 장학금 지급을 넘어 유망한 한인 학생들을 서울대 네트워킹을 통해 미국 사회 리더로 키워낼 수 있다면 미주 동문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광국·고국화 동문 부부가 장학 프로그램을 위해 100만 달러 기부를 약속하고 올해까지 20만 달러를 보냈고 2026년부터는 매해 20만 달러씩 보내 2029년이면 100만 달러를 완납한다. 그러면 장학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다.

한편, 올해 평의원 회의에는 미 전역은 물론 모교에서 100명이 훨씬 넘는 동문 가족들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룬 전망이다. 황효숙 차기 회장은 “예년의 경우 보통 80명 정도 참여해 세인트폴 호텔 방을 50개 잡아놔었는데 매진돼 10개를 더 늘렸다. 그런데 그것도 다 나갔다”면서 “오하이오, 조지아주에서도 연락이 와 큰 관심을 보이면서 오시겠다고 해 손님 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SNU-미네소타 프로젝트 2, 의대 동문들이 첫삽 떴다

김태환 동문 호소에 북미주 동창회 모임서 4만 9천불 즉석 모금

오는 7월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18대 미주동창회 황효숙(사대 65) 회장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서울대&미네소타대 프로젝트 2 (SNU&MN Project II)'다.

황효숙 제18대(차기) 회장은 이를 위해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리는 제34차 평의원 회의 첫날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 기념 위크숍'으로 18대 사업의 첫 출발을 알린다. 그런데 18대 출범에 앞서 사업은 벌써 시작됐다.

지난 4월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5만달러 기부를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십시일반 4만 9000달러를 걷어 SNU&MN Project II를 위한 기금 조성의 첫삽을 뜬 것이다. 이날 의대 동문들에게 SNU&MN Project II의 취지를 알리고 동문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건 김태환(의대 64 졸업) 동문이었다.

김태환 동문은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만큼 황효숙 차기 회장의 도움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LA에서 버지니아로 날아갔고 의대 동문들에게 '서울대와 미네소타대의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날 모임에 참석한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도 김태환 동문에게 행정적인 협조와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환 동문은 의대 뿐 아니라 미주 전역 동문들에게 SNU&MN Project II에 대해 상세히 알리고 싶다는 미주 동창회보 편집진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왔다. 김 동문의 글을 소개한다.

SNU&MN Project의 역사: 의대편
한국 전쟁직후인 1954년 미국정부

18대 황효숙 차기회장 집행부 추진 역점 사업 “한국 전쟁 후 받은 도움 이젠 베풀고 돌려줄 때”



지난 4월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에 참석한 김태환 동문(왼쪽에서 세번째)이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 등 이날 모임에 온 서울의대 교수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는 전세계 8개 개발 도상국가의 고등교육 발전을 돕기위한 원조 계획을 발표하고 각 나라마다 대학 1개씩을 선정해 미국의 8개대학과 연결해주었다. 이것이 서울대학과 미네소타 대학과의 인연의 시작이다. 그로부터 7년동안(1955~1962) 226명의 서울대 의대, 공대, 농대 그리고 수의대 교수들이 미네소타에 와서 연수를 받았고 59명의 미네소타 교수들이 자문을 맡았으며 그중 11명은 서울까지 와서 일을 했다.

62명의 의사, 9명의 간호사, 1명의 병원 행정가를 포함한 72명의 직원을 보낸 의대는 단연 최대의 혜택을 본 단과 대학이 되었다.

226명의 교수중 한명만 이탈하고 전원 귀국한 한국을 미국정부는 8개 나라중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동시에 많은 미네소타 대학 관계자들

은 SNU&MN Project가 자기 대학이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있고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SNU&MN Project II의 탄생

이 프로젝트 시작 50주년이 되던 2005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큰 기념행사를 열고 황우석 교수를 key note speaker로(스캔들이 터지기 전) 초청해 생명체 복제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를 계기로 당시 미네소타대학에 근무하던 서울의대 출신 몇몇 교수들과 50년전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던 은퇴한 미네소타대 교수들이 모여 이처럼 보람있는 사업의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 나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돕는 형태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을 하기로 했다. 후에 SNU&MN Project II라

고 불려진 이 사업에 의해 서울의대 학생과 미네소타 의대 학생들이 서로 상대 학교를 한달동안 교환방문해 수업을 받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서울의대에 서 기증한 5만불을 포함한 약 7만불로 시작한 기금은 양쪽 학교의 학생들이 상대방 학교에 체재시 숙박비로 쓰여졌다.

“이 프로그램으로 처음 온 학생들이 다음날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미네소타 의대생들과 섞여 강의를 듣고 회전을 도는 것을 보며 이 학생들에게는 언어 장벽이라는 것은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의 우리세대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런 귀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부럽기도 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는데 일조를 할수 있었던 우리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김태환 동문은 “지금은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게 도와준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의대 동창회보인 시계탑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기로 했는데 미주동창회보에도 나가면 더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환 동문은 또 “과거 미네소타대의 도움을 받았던 서울의대가 지금은 라오스 의학계를 돕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SNU&MN Project의 정신을 계승해 후진국 의료계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오는 6월 평의원 회의에서 멋진 제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효숙 차기 회장은 “1950년대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의학, 농학, 공학 등 3개 단과대학에서 처음 시작해 수의학, 간호학, 보건학, 행정학 등 총 7개 분야로 확대됐다”며 “2025년 미네소타 프로젝트 2가 우선 의학 분야에서 시작되지만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 부회장 신학철(공대 75) 동문도 평의원 회의 참석



오는 6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리는 제 34차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는 특별한 손님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한다.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2019년부터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학철(공대 기계공학과75·사진) 동문이 그 주인공이다.

평사원으로 한국 3M 입사해 미네소타 본사 수석 부회장까지 ‘샐러리맨 신화’ 쓰며 미네소타 지부 동창회장 맡아 적극 활동

LG화학을 톱 글로벌 과학기업으로 키우느라 여념이 없을 대기업 대표이사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미네소타 그리고 황효숙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신학철 동문은 황효숙 동문이 제18대 차기 회장 출마를 발표했을 당시 그를 적극 지원하며 미주동창회보에 추천의 글을 보내오기도 했다.

황효숙 차기 회장은 “신학철 동문은 미네소타에 있는 3M 본사에서 해외사업부 문 수석부회장을 하던 2011년 바쁜 와중에도 미네소타 동창회 지부 회장을 맡아 동창회 활동을 이끌었고 제가 미네소타

한인회장을 할 때도 많은 지원을 해줬다”며 “이번 평의원 회의에도 직접 오시겠다고 해 역시 한번 동문은 영원한 동문이라는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학철 부회장에게 미네소타는 ‘제2의 고향’ 이나 다름 없다. 1984년 한국3M에 입사해 1995년 필리핀법인 사장을 거쳐 1997년부터 미네소타 3M본사에서 근무했다. 2002년 3M 전자재료 사업부 부사장, 2005년 3M 산업용비즈니스총괄 수석 부사장, 2011년 해외사업부문 수석부회장, 2017년 3M 글로벌 R&D, 전략 및 사업 개발, 제조물류본부, IT, BT 총괄책임 수석부회장 등 평사원으로 입사해 수석

부회장에 오르는 ‘샐러리맨 신화’를 써 내려 간 곳이 바로 미네소타다. ‘혁신의 전도사’로 불리던 신학철 동문은 2019년 LG 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영입되며 21년간의 미네소타 생활을 뒤로 하고 서울로 떠났다.

미네소타 동문들은 “매우 소탈하고 겸손한 성품에 동창회 활동을 적극 지원했는데 옛 친구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들뜬다”며 “이번 평의원 회의는 유봉이자원방래(有朋自遠方來)’하는 자리라 더욱 기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신학철 동문은 2021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수상했고 ‘원칙과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2025년부터 서울대학교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한국공학한림원 이사장에 선출됐다.

“1만 마일 지부 방문 · 동문 DB 구축은 큰 보람”

미국과 캐나다 서울대 동창회의 연합체인 미주동창회장은 2년 임기로 지역별로 순회하며 회장직을 맡는다. 제17대 회장단은 지난 2023년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오는 6월30일에 마치게 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7대 집행부를 이끈 이상강(의대 70) 미주동창회장을 만났다.

어려서 ‘당시’(당나라 시)를 배워 낭만을 논하고 두주불사를 즐기는 풍류의 소유자 이상강 회장은 은퇴한 호흡기 내과 전문의다. 장수로 치면 ‘용장’에 가깝다. 오클라호마의 대저택을 팔고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으로 이주해 회장직을 수행했다.

“회장직 수행에 아무래도 동문들이 많고 우리 부부가 미국 생활을 시작했던 남가주가 낯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강 회장은 중부의 아이오와, 미주리, 캔사스, 아칸소, 오클라호마 등을 포함하는 하트랜드 지부장(2014~2016)을 역임했다.

막상 남가주에서 회장직을 수행하려 했는데 시작은 쉽지 않았다. 동문들이 많이 거주하니 다른 곳과 달리 단과 대학별 지부가 따로 구성돼 있어 행사와 모임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남가주 지부 및 남가주 단대 지부에서 개최하는 모임에는 모두 참석해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고 남가주 지역이 미주 동창회 사업의 중심은 아니었다. 이상강 회장은 지부를 직접 찾아 미주 동창회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시도했다. 이 회장은 이를 ‘1만 마일 지부 방문’이라고 불렀다.

그의 임기 중간년도인 2024년에 자동차를 직접 몰고 동문이 많이 모여 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리건을 거쳐, 시애틀까지 서부 대륙을 종단하며 동문들을 직접 만났다. 이어서 대륙 서부에서 동부로 횡단해 보름 넘게 애틀랜타, 시카고, 미시간, 뉴잉글랜드 지부를 방문했다. 가는 곳마다 지부 모임을 따로 열었다. 적

6월말로 임기 마치는 이상강 제17대 미주동창회장



이상강(왼쪽) 회장과 김경숙 사무총장.

“미주 전역 동문들 직접 만나 모교 사랑 느껴”

10만불 기부, 동창회 운영에 사재 2~3만불 써

게는 10~20명, 많게는 30~40명의 동문을 만날 수 있었다.

“애로 사항을 들으러 갔는데 좋은 말씀만 해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많은 동문이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이역만리 임에도 모교를 사랑하고 또한 동창 모임에 무척 협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일정으로 횡단과 종단에 나선 것은 이 회장이 70대 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직접 동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강행했는데 성과는 매우 좋았다. 따로 긴 시간을 마련해서 얼굴을 맞댄 것에 대한 고마움이 한 몫 한 것이다.

동창회 지부를 찾으면서 이상강 회장은 동문들의 현장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었다. 특히 후배들의 바람을 들어 장학금이

나 젊은 동문 모임을 위한 후원금도 전달했다. 선배들에게는 동창회 후원의 필요성을 역설해 종신이사 영입도 많았다. 신규 가입자도 많았고 이미 종신이사였던 동문도 실버, 골드이사로 적극 참여해 미주 동창회의 운영을 돕자는 바람이 불었다.

이상강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동문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에 올려 운영하는 것이었다.

수년 전 전수 조사에 가까운 작업 끝에 8000명이 넘는 미주 등록 동문을 발굴, 확인했지만 마땅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를 알면서도 선뜻 개선하지

못했다. 하지만 임기 초반에 이를 파악한 이상강 회장은 알맞은 시스템을 채택해 온라인에 수록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됐다. 1년 여간 10여 동문이 봉사해서 이뤄졌다.

“처음에는 봉사할 인력도 없고 재정도 튼튼하지 않아서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런데 동문 중에서 관련 기술 전문가의 은퇴 소식을 듣고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주위의 우려 담긴 시선도 불식 시키고 마침내 론칭에 성공했다. 이상강 회장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가 빛을 발했던 것이다. 이제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활용은 차기 회장단으로 넘어간다. 돌아보면, 이상강 회장이 아쉬운 것이 있다.

“원래 로스앤젤레스에 사무실과 집행부를 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영구적인 동창회 사무실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회관을 구입해 미주 동문들의 사랑방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동문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2년마다 집행부가 미주를 순회하는 시스템이니 임기 중인 집행부가 다루기에는 너무 큰 ‘아젠다’였다.

이상강 회장은 “그래도 대다수의 사업이 동문들의 협조로 잘 진행됐다”면서 “요청하면 모두 협조해줬다. 역시 명문대 출신들은 일도 깔끔하게 잘한다”고 말했다. “간혹 미주동창회보가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접수한 적이 있다”며 그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돼 있으므로 동문들이 주소 변경만 제때 해주면 불편한 일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기 중 이상강 회장은 10만 달러를 기부했고 역시 부인 김경숙(생과대 70) 동문은 모교에 3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정한 상태다. 임기 중 이 회장이 동창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한 개인 사재는 2~3만 달러라고 밝혔다. **장병희 편집위원**

제 34차 평의원회의

공로패 수상자 명단

오는 6월 20~22일 미네소타 세인트폴에서 열리는 제 34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에서는 3부문에 걸쳐서 14명에게 공로패가 수여된다.

우선 유홍립 총장이 수여하는 공로패에는 평의원 회의를 기해 임기를 마치는 이상강 제17대 미주동창회장이 받게 된다.

이어서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수여하는 공로패에는 제17대 사무총장으로 일한 김경숙 동문을 비롯해, 지부장으로 활약한 김법섭, 최진민, 조규승, 임현민 동문이 받는다. 마지막으로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수여하는 공로패에는 제17대 집행부로 2년간 수고한 백정현, 박해옥, 최응환, 임항균, 나용화, 최경석, 신복례, 장병희 동문이 받게 된다.

서울대 총장 공로패 수상자			
이상강	의대 70	남가주	17대 미주동창회장으로 헌신
김창수	의대 54	커네티컷	커네티컷 지부 활성화, 미주동창회 적극 후원
조상근	법대 69	뉴욕	한국 원자력 산업 발전 산파, 다이아몬드 종신이사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	SNU 포럼 창설 주역
서울대 총동창회장 공로패 수상자			
김경숙	생과대 70	남가주	17대 미주동창회 사무총장으로 헌신
김법섭	공대 79	북가주	북가주 지부장으로 헌신
최진민	공대 71	매사추세츠	뉴잉글랜드 지부장으로 헌신
조규승	문리 72	시카고	시카고 지부장으로 헌신
임현민	공대 82	워싱턴	워싱턴 지부장으로 헌신
미주동창회장 공로패 수상자			
백정현	음대 66	남가주	17대 동창회 임원으로 헌신
박해옥	간호대 66	남가주	17대 동창회 임원으로 헌신
최응환	상대 80	남가주	17대 동창회 임원으로 헌신
임항균	사범대 73	남가주	17대 동창회 임원으로 헌신
나용화	생과대 79	남가주	17대 동창회 임원으로 헌신
최경석	사범대 80	남가주	17대 동창회 임원으로 헌신
신복례	인문대 83	남가주	17대 동창회 임원으로 헌신
장병희	인문대 86	남가주	17대 동창회 임원으로 헌신

뉴욕 동창회도 젊은 동문 모임 ‘관악클럽’ 출범

미주에 있는 많은 한국 학교 동창회의 공통적인 고민은 바로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회원이 노령화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원이 줄어들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아쉬움이다. 우리 서울대 동창회의 지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창회가 줄어드는 이유와 각 동창회들의 타개책, 각 지부들의 젊은 동문 모임의 현황을 알아본다.

지난 5월8일 오후 6시30분 뉴저지 포트리 소재 가연 식당 별실에서 서울대 뉴욕 동창회(회장 김정필) 사상 첫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클럽 제1회 행사가 열렸다.

이날 모인 젊은 동문은 무려 20여 명에 달했다. 특히 동창회 행사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동문이 12명이나 됐다. 관악 캠퍼스라는 공통 장소는 그것만으로도 공감대를 이뤘다. 참석한 동문들의 웃음과 이야기꽃은 활짝 피어났다. 뉴욕 지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모임은 이날 젊은 동문들의 뜨거운 열기로 지부의 미래가 밝아졌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번 모임을 통해 형성된 끈끈한 네트워크와 교류가 앞으로 동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다.

정해진 상임고문은 “뉴욕관악클럽의 성공적인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이 모임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니어 모임인 골든클럽과 더불어 동창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뉴욕 지부는 그동안 73학번 이전 선배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나, 아쉽게도 관악 캠퍼스 출신 젊은 동문의 참여가 저조하여 차세대로의 발전적인 이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2학번 김병순 동문이 오는 7월부터 동창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하며, 80년대 학번들이 동창회의 주축으로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필 지부장은 “뉴욕관악클럽은 이



뉴욕 동창회에도 젊은 동문 모임인 관악클럽이 출범했다. 지난 5월8일 첫 모임을 가진 젊은 동문들.

첫 모임 20여명 참석, 이야기꽃 활짝 시니어 모임인 골든클럽이 적극 후원

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창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뉴욕 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문들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5월 22일 골프 대회에 이어, 8월 23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크닉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뉴욕관악클럽 모임은 9월 또는 11월 경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뉴

욕관악클럽 모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배들의 활발한 교류와 성장을 응원하며 뉴욕 골든클럽의 후원을 결정이 주효했다.

이렇게 선배들이 나서서 후배들의 모임을 후원하고 응원하는 추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동창회 모임이 예전과 같지 않은 이유 중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한국발 이민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타 학교에 비해서 유학생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우리 학교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이제 가족 초청으로 미국에 이민 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신규 동문들의 유입은 유학을 왔다가 미국에 정착하는 젊은 후배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소위 ‘영시니어’(young senior)라 불리는 조기는 퇴 동문 중에서 비교적 동창회 조직이 잘 갖춰진 곳으로 이주하거나 뒤늦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동창회 참여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굴레에 뒤늦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학을 왔거나 정착한 지 열



뉴잉글랜드 지부 청년 모임인 관악회 회원들. 오른쪽 사진은 시카고 지부 관악클럽 모임. 가족 단위의 동문들이 많이 모인다.

‘안 뭉치는 모래알’은 옛말 ... “모이면 끈끈해요”

마 되지 않은 젊은 동문들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 동창회는 장점이 많은 조직이다.

현재 미주에서 조직된 서울대 동창회는 입학 시 유사한 스펙으로 구성됐기에 졸업생도 유사한 실력과 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0년 전 이민 온 한 동문은 우연히 동문 모임에 갔다가 당시에 미국 온 지 얼마 안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회사에 와서 함께 일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지도 않다.

그런 점에서 젊은 동문들의 좋은 직장 찾기와 선배 동문들의 좋은 인재 구하기가 서울대 동창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다. 굳이 구인구직이 아니더라도 정보, 특히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좋은 고급 정보를 얻는 창구로서 동창회 모임은 매우 믿을만한 터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싶은 동문을 찾는 경우가 또 다른 동창회의 목적이다. 골프, 바둑, 등산, 자전거, 연극, 록밴드, 문학 웹사이트, 가족 피크닉, 심지어는 카드놀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이런 취미 및 여가 활동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선후배간에 보다 더 진지한 활동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여간 동창회의 소모임, 젊은 동문 모임의 지향하는 바는 리더나 모임 집행부가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다르다.

남가주는 20여 년 전에 ‘관악 연대’라는 후배 그룹을 시작했다. ‘관악고대’나 ‘관악서울대’가 아니고 왜 ‘관악연대’냐는 우스개 소리도 들었지만 초창기 모임에 엄청난 인원이 참가해 활기를 띠기도 했다. 한 가을 모임에 있었던 일이다. 오후 6시에 시작한 자기 소개 시간을 1~5

분으로 정했음에도 대부분 참가자가 자신의 소개를 마치니 오후 11시가 지났다. 그리고 모임을 귀가했다.

또 관악연대는 한인타운 식당에서 매주 점심 한 끼를 하는 모임을 갖기도 했다. 워낙 인원이 많아서 최소 몇 명이 모일 수 있어서 모임이 가능했다. 또한 관악연대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모임이

단하고 동서로 횡단하면서 각 지부를 찾는 일정을 가졌다. 이 회장은 방문지마다 장학금과 젊은 동문 모임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역별 지부를 간단히 살펴보면, 남가주 관악연대는 현재 팬데믹으로 소강상태에 있지만 기금 모금 초청 골프대회

워싱턴DC · 시카고 · 뉴잉글랜드 등 모임 활발 샌디에고는 젊은 동문 집행부 덕에 활기 넘쳐

탄생했다. 젊은 동문 몇 명과 선배 몇 명이 모이면 소모임이 탄생했다. 은하계 중심에서 매 순간 수많은 별이 탄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또한 몇 년 동안에는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간단한 풍자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소재 때문에, 지향하는 정치적인 관점 때문에 일부 동문들은 불편했겠지만 후배들이 시간을 내서 대본을 쓰고 모여서 연습을 하고 무대에 공연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도 그 당시 합을 맞춰던 동문들 일부가 남가주 총동창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한 때의 유행만이 아니고 진심 어린 참여, 이타의 정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젊은 동문 모임이 미래의 지부가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유학생 동문 개개인이 미국에 정착하느냐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하느냐에 따라서 활동 지역이 달라질 뿐이다. 유학을 끝내고 정착한 지 얼마 안된 동문들도 앞으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참여와 봉사의 질과 양이 달라질 뿐이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깊은 잠에 빠졌던 동창회 조직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주 동창회 제 17대 이상강 회장이 미국 대륙을 남북으로 종

를 개최할 정도로 역량을 많이 쌓은 상태다.

시카고 지부 산하에는 관악클럽(회장 김수현 생활대98)이 운영되고 있다. 정성일 현 지부장이 초대 임원으로 활약했다. 지난 2010년 경부터 시작됐고 시카고 지역의 동문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모인다. 등록은 40명 정도이고 열성 회원은 20명 정도다. 2024년 11월에 모인 정기 모임에는 4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오프라인 모임은 가족 중심이지만 온라인 모임은 스와제(스페인어 수업, 독서 모임 등)로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다. 시카고 지역 한인 인구와 동문 인구가 예전 같지 않지만 타주에 비해서 자주 더 많이 모인다고 볼 수 있다.

워싱턴 DC 지부는 산하에 ‘샤로수’라는 이름의 모임을 갖고 있다. ‘샤로수’는 관악캠퍼스 인근에 있는 핫플레이스를 샤로수길이라고 부른다는데 착안해 이름을 따왔다. 샤로수를 아는 세대를 상징하며 00년 학번부터 참여하고 있다. 2017년에 지부 집행부가 유학생 동문을 초청해 시작했다. 처음엔 4명이었고 현재는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 따로 회장은 없지만 지부 총무인 류영준(전기 학부02) 동문이 주도하고 있다. 학생들 위주였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 정착

한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0년 학번이 들어왔다. 지역 특성상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DC를 비롯한 지역의 젊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기 모임은 매년 2번이고 소모임을 매달 열기도 했다. 팬데믹 전에는 ‘크랩을 잡으러 가는 이벤트’ 등 다양한 모임을 개최했고 선후배가 함께 참여하는 ‘볼링 나이트’도 열었다. 특히 샤로수는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자부심이 강하다. ‘한 번 샤로수면 영원한 샤로수’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이나 타주로 이주하더라도 지역 샤로수 출신을 연결해 모임을 나누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보스턴 중심의 **뉴잉글랜드 지부**도 관악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연구자, 석박사 과정 동문 등이 많아서 활기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네소타 지부**의 경우,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8월중에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환영회’를 따로 갖고 있다. 지난 2024년의 경우 재학생 6명과 신입생 4명이 참석했다.

필라델피아 지부도 80학번 이후의 비교적 젊은 동문들의 소모임으로 ‘관악세대’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또한 새로 지부장이 들어서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조지아 지부**는 조지아텍에서 공부하고 있는 20~30대 동문들과 선배들이 만난 ‘후배들과의 만남’ 행사를 갖는 등 교류와 소통의 공간을 넓히고 있다.

샌디에고 지부의 경우, 집행부가 이미 90년대 학번인 40대와 50대 초반 동문들이 주도하고 있는 등 동창회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류영준 동문은 “젊은 동문들이 서울대 스피릿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 잘 참여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하는 정신, 실행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워싱턴DC 지부 샤로수 모임에 참가한 젊은 동문들. 2000학번부터 참여하고 있어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보인다. 오른쪽 사진은 샌디에고 동창회 모임에 4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와 백일 떡을 돌린 신희선 동문.



한 시대를 풍미한 그녀… “나는 왜 노래를 하는가?”

소프라노 강미자(음대 62) 동문, 자전적 에세이 ‘나, 강미자’ 출간 앞뒀

74살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독창회를 했고, 39살에 카네기홀로 데뷔하여 76살에 카네기홀 무대를 내려온 강미자(음대62) 동문이 머지 않아 자전적 에세이 ‘나, 강미자’를 출간한다.

‘시대를 풍미했던 성악가가 자신의 일대를 노래처럼 써내려간 에세이’라는 부제로 자신을 향해 던진 질문 ‘나는 왜 노래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무대에 서는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강미자 동문은 “일평생 노래만 부르던 내가 책을 내겠다고 생각한 것은 작년(2024년)부터”라며 “그동안 신문이나 잡지에 썼던 글들이 적잖았고, 노래의 흔적들도 사진으로 꽤 남아 있었다. 노래의 영원함을 글로 남기고 싶었다”고 출간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미자야, 노래는 너를 살리는 힘이었고, 네가 사는 힘이였다.

네 삶의 한 가운데에는 언제나 노래가 있었다.

네 인생은 노래에서 시작됐고, 너는 노래를 따라 걸어왔고,

이제 그 노래의 영원함을 글로 써야 하는 거야.”

대답은 이어진다.

“그동안 국내외 독창회와 방송 등 여러 콘서트에서 불렀던 노래들도 영상이나 음반 녹음으로 남아 있다. 그 자료들 중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음악 애호가들이 공유하고 있고, 젊은 성악가들이나 성악도들에게는 레퍼런스로 활용되고 있다. 부족하고 미약한 노래나마 후배들이 유튜브로 내 노래를 애청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고 생각했다.”

강 동문의 생각에 유튜브에는 수많은 세계 명연주자들의 전설적인 클래식 성악 명연들이 쌓여있는데 비해, 한국 성악가들이 부른 노래는 많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그의 나잇대 한국 성악가들의 노래는 더욱 귀해서 찾아 듣기가 어렵다. 그러니 노래하는 후배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 70, 80년대 그를 기억하는 음악 애호가들이 유튜브에서 그의 노래들을 찾아 듣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강 동문은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 책의 출간과 함께 더 많은 음악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다.

강 동문은 꽤 많은 녹음을 했다. 초창기엔 주로 LP 레코드에 노래를 담았다. 그중 1977년 녹음한 ‘강미자 애창 가곡집’과 1981년 녹음한 ‘강미자 애창 성가집’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두 음반 모두 지휘와 편곡은 장일남 선생께서 맡았고 KBS교향악단이 반주했는데, 판을 거듭 찍으면서 나중엔 CD로도



강미자 동문의 자전적 에세이 ‘나, 강미자’ 책 표지.

80년대 카네기홀, 뉴욕 링컨센터 등 무대 누벼

88올림픽 기념 뉴욕 센트럴파크 무대에서도 공연

2017년 74세 나이에 서울 예술의 전당 독창회

출반되었다.

강 동문은 “세월이 흐르면서 내 노래 영상들도 많이 소실 되었지만, 다행히 디스코그래피에는 제법 남아있었다”며 “어떤 형태로든 모든 노래들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애썼다. 그 기록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는 유튜브에 더 업로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 음악계에 전설같은 얘기는 강 동문이 2017년 6월 6일, 예술의전당 IBK

홀 독창회를 끝으로 무대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일흔 네 살의 생일이 지난 후였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때까지도 남편 이채진 동문이 매년 강의 때문에 한국에 가야 했고, 남편을 따라서 해마다 고국을 한 두 차례씩 방문할 수 있었다. 그때마다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독창회나 방송 출연 등 콘서트를 원했다.

70대가 되어서도 많은 연습을 했다. 누

구든지 나이를 먹으면 죽게 되듯이, 누구도 예외 없이 늙으면 목소리도 빛을 잃게 된다. 목소리가 악기인 성악가들에게, 목소리는 생명과도 같다. 그 생명은 오로지 연습에 의해서만 살아난다. 연습은 고되지만 목소리를 오랫동안 젊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이가 젊은 성악가라고 하더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의 빛깔은 점 점 바래지게 마련이다.

일흔 넷의 나이로 독창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호불호’(好不好)가 있었다.

“여전히 노래를 부르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라는 격려와 “여전히 노래를 부르시는군요. 그만 둘 때가 아닌가요?”라는 충고 말이다. 순전히 인생의 관점을 어떻게 가졌냐는, 개인차에서 오는 개인적인 문제일 것이다. 대부분의 성악가들이 은퇴할 시기라 할 수 있는 나이에도 나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기쁨을 누렸다.

강 동문은 자전적 에세이 출간을 앞두고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사실은 불안하다. 그를 스토리텔러로 인정한 이는 남편 이채진 박사다. 늘 노래에 목말라 하는 강 동문을 보고 이 동문은 말한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이제는 라이프 스토리를 써보라!”

영원한 현역 소프라노 강미자 동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 한다.

“평생 노래를 동반자로 살았으니 노래를 부르다가 무대 위에서 죽는 게 꿈이었다. 그 꿈은 이제 책 쓰는 일로 바뀌었다. 나의 노래는 책이 된 셈이다. 노래를 부르듯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나의 독창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수고와 시간과 스태프들이 공을 들여 준비했든가. 60여 년 동안 노래하면서 살았던 내가, 그 60년이 응축된 음악 인생의 여정을 이제 책에 쏟아 부으려고 한다. 나의 노래는 책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2017년 서울에서 열린 독창회 포스터.



소프라노 강미자의 한국가곡집.



소프라노 강미자 애창곡집.

‘수학 대통일 이론’ 신석우(자연과학대 97) 동문, 호암상 수상

신석우(자연과학대 97) 동문은 세계 수학계의 난제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UC 버클리에서 정수론과 랭글랜즈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최근에는 한국이 자랑하는 수학자로서 ‘2025 삼성호암상(과학상 물리·수학 부문, 상금 3억원)’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 동문은 1995년 한국 최초로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만점을 받기도 했다. 신석우 동문에게 수학의 쓸모, 서울대에서의 추억, AI에 대한 생각 등을 묻고 들었다.

-수상자로 선정된 연구 주제, ‘수학 대통일 이론’이라 불리는 랭글랜즈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제 전공은 정수론입니다. 정수론은 소수에 나타나는 규칙부터 대수방정식의 정수해나 유리수해를 다루는 이론까지 폭넓게 포괄합니다. 쌍둥이 소수 추측, 골드바흐의 추측, 펠 방정식,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등도 그 예죠. 현대 정수론은 이들 고전적 문제를 자극 삼아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칙을 탐구합니다. 랭글랜즈 프로그램은 그 중심에 있는 연구 분야로, 정수론의 여러 갈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영역 간 대칭성과 구조를 비교해 그 관계를 밝히는 ‘쌍대성(reciprocity)’ 과, 어떤 수학적 성질이 다른 체계로도 일관되게 옮겨지는 ‘함자성(functoriality)’이라는 추측이 핵심이고요.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장 A에 높은 벽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뉘어 각각 지구인과 외계인이 놀고 있다고 합시다. 서로 만나거나 보이지 않지만 외모적 특성을 공유하는 지구인과 외계인을 한 명씩 정확히 짝지을 수 있다는 것이 쌍대성입니다. 그런 운동장 B가 하나 더 있다고 할 때, 운동장 A에 있던 지구인 하나가 B로 옮겨 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짝이 되는 외계인도 반대편에서 운동장 A를 떠나 B로 옮겨 간다는 것이 함자성입니다. 운동장에서 지구인과 외계인은 벽에 가려 서로 안 보이지만 공중에 거울을 설치하면 비로소 자기 짝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시무라 다양체(Shimura varieties)입니다. 거울이 크면 클수록, 또는 더 많은 시무라 다양체를 이해하게 될수록, 더 많은 지구인과 외계인들이 자기 짝을 찾게 됩니다. 거울이라는 비유가 와닿지 않으면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수학적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제 성과는 랭글랜즈 프로그램에서 위에 말한 세 가지, 즉 쌍대성, 함자성, 그리고 시무라 다양체 각각에 대해 공헌을 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Kisin, Y.Zhu교수와 함께 한 제 최근 결과는 여러 새로운 시무라 다양체를 이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거울을 통해 다양한 난제 해결에 활용하게 됐음을 뜻하고 실제로 정수론에서는 이미 수학자들이 이를 이용해 여러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수학의 사회적 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학은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고 또한 인간이 고도의 사고를 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이자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고대로부터 최근 회자되는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양자 계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UC버클리대 수학과 교수로 2025 삼성호암상을 받은 신석우 동문.

UC 버클리대 교수로 정수론 등 연구 17세 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만점 순수 수학의 쓸모는 ‘시간’이 말해줘 AI는 연구보조 역할로 이용이 바람직

있지요. 다만 제 연구를 포함해서 순수수학의 여러 연구는 당장의 쓸모 없이 지적 호기심에 이끌려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정수론에서 악명 높은 난제인 리만가설이 내일 해결된다고 해도 우리 삶이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학자들이 세상에 아무 관심 없이, 신선놀음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변명을 하자면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리와 규칙을 규명하는 것이 결국에는 쓸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아직 쓸모를 찾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수십년 이상이 지나서야 쓸모를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수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고 좋아하기도 해서 큰 고민 없이 선택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진로를 다시 생각해 봤지만 수학 말고는 특별히 잘하거나 끌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수학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깊은 학문이었지만, 문제를 풀거나 토론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그 괴로움을 상쇄하더군요.”

-수학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시다시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서 논문으로 작성해야 박사가 되는데요, 저는 박사 3년 차에 들어갈 때까지도 답이 알려진 문제(예를 들면 고등학교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거나 남이 쓴 논문을 읽고 따라가는 것뿐 보조정리 하나조차 저만의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 차 어느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소하지만 제 것이라 부

를 수 있는 보조정리를 하나 증명했을 때 뭔가 장벽 하나가 허물어진 기분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누워만 있던 아기가 구르고 앉고 기어다니기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뭔가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그 보조정리는 제 졸업논문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대에서의 학부 시절은 교수님의 연구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수학과 공부보다 동아리 활동에 열중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SNUPO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며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 경험이 지금 음악 전공인 제 배우자와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방향과 여유가 있었기에 이후 유학에서는 오히려 미련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후배인 허준이 교수와 교류하나요?

“직접 연구 분야가 겹치진 않지만, 고등과학원을 방문하는 시기가 겹쳐 가끔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수학계를 이끄는 모습을 보며 저도 긍정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AI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수학자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나요?

“아주 길게 보면 위협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AI는 유용한 도구이자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AI가 성공적인 연구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AI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수학적 발견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AI가 이미 고등학교 수준 수학 올림피아드 수

준의 문제는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연구와 같이 창의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AI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AI가 협업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연구 외에도 AI가 수학자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숙제나 시험을 빠르게 채점하거나 이메일이나 문서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한편 최근에 제 지인 수학자가 유명한 독일어 수학 논문 한 편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ChatGPT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철학이 있으시다면?

“나 중심의 삶, 특히 교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적 가치이지만, 학문적으로도 교만은 배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친절조차 자기만족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하고자 노력합니다.”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여행을 많이 다니며 외국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어에 관심이 많고, 대학원 때 배웠던 프랑스어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중국어는 여행할 때 편할 정도로 익히고 싶어요. 또한 가족과 함께 K-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탁구를 가족 운동으로 만드려 노력 중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문제나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4학년 딸이 있습니다. 제가 감정에 둔감하고 눈치가 없는 편인데, 그래서 오히려 의식적으로 아이들과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학문적 목표가 있다면요?

“랭글랜즈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수학은 방대하고 인생은 짧죠. 그래서 공동연구와 학자 간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자 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버클리에서 한국 출신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매년 고등과학원을 방문해 학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남주 기자

신 동문은

모교 졸업 후 2007년 하버드 대학 수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미국 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y)의 연구원을 거쳐, 2011~2014년 MIT 수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UC버클리 대학 수학과 교수로 있다.

뉴스레터 만드는 시카고 ... 작년에 4번이나 발행

서울대 미주동창회 산하 각 지역 동창회 중에는 1년에 서너 차례씩 뉴스레터를 만들어 동문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지부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워싱턴 DC 지부와 시카고 지부다.

워싱턴 DC 지부는 2020년 7월 박상근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젊은 동문들이 주축이 돼 뉴스레터 편집팀을 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 발송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면수도 줄고 1

이준수(공대 76) 동문이 책임 맡아 MS 워드로 제작
지난 3월 올해 첫 호, 동문 300여명에 이메일 발송

년에 서너 차례로 횡수도 줄었지만 당시 편집팀 막내였던 박기현(외교학과 08) 동문의 애정과 노력 봉사로 그래도 이제껏 뉴스레터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시카고 지부는 2010년대부터 간헐적으

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오다 2024년 지난해에는 4차례 발간했다. 지난해부터 뉴스레터를 책임지고 있는 이준수(공대 76) 동문은 "처음 계획은 5번 발행하는 것이었는데 늦어져서 모두 4번 발행했

고 2025년 첫 호는 지난 3월 발행해 동문 300여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준수 동문은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로 간단하게 만들고 있는데 선배님들이 기사를 많이 작성해 도움을 주신다"며 "뉴스레터를 받은 동문들에게서 반응이 올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행된 시카고 동창회의 2025 스프링 뉴스레터를 미주 동문들에게도 소개한다.



서울대 시카고 동문들의 특별한 만남, '골든 클럽' 활성화 비결은?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끈끈한 유대감, 격변의 한국 근현대사를 함께 경험한 세대의 공감대,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쌓은 특별한 경험들이 어우러져 '골든 클럽'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이 클럽은 최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회원들에게 특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골든 클럽'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회원들은 입을 모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꼽는다.

첫째, 강력한 유대감의 원천, '서울대 학연': 서울대학교라는 공통분모는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회원들 사이에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는 단순한 동문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낸다.

둘째, 역사의 파도를 함께 넘은 세대의 공감대: 독립, 전쟁, 경제 성장, 민주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격변의 시대를 함께 헤쳐온 경험은 회원들 간의 깊은 이해와 유대감을 증진시킨다.

셋째, 미국 사회에서 쌓은 특별한 경험의 공유: 이민, 유학 등 미국 사회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 특히 이민자로서 겪는 독특한 경험은 회원들 간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초강대국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험은 회원들에게 특별한 공감대를 선사한다.

넷째,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조화로운 공감대: 한국적 전통과 미국 문화의 조화로운 경험은 독특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문화적 공감대는 클럽 활동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더하며, 회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섯째,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문화적 정체성: 나이가 들수록 모국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은 동문 모임을 더욱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주며, 회원들에게 즐거운 일상을 선사한다.

여섯째, 끊임없는 지적 자극: 강연, 토론, 한담 등 다양한 지적 활동은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클럽 활동의 질을 높이고 회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곱째, 활발한 온라인 소통: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활발한 소통은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이는 클럽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들의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골든 클럽'의 한 회원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클럽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골든 클럽'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클럽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진, 글 제공: 한경진 동문) (상대 58, 2024 골든클럽 회장)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은 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채우고
내일을 채우는
천원의*식사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 간단 참여신청서 *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america@snu.ac.kr 으로 보내주세요.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성명:

연락처(이메일):

학과(특별과정):

약정금액: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 +1-212-768-9144 F. +1-212-768-4494 E. kenneth@klo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 +1-213-435-1974 E.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 +82-2-871-8004 E. snuf@snu.ac.kr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잠시 멈춰 역사를 되돌아본다”

뉴욕 동창회 북클럽 2025년 1차 정기 모임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서울대 뉴욕 북클럽(대표 신응남 · 15대 미주동창회 회장)은 지난 5월 1일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정기 모임을 열고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토론했다. 고국인 한국에서는 12.3 계엄 여파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정 공백의 혼란 상황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철학자나 역사가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면,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역사를 되돌아보기를 권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H. 카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지금같이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이씨 왕조 오백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난세 중에 조국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역사인식의 깊이를 함양하기를 바라며 ‘조선왕조실록’을 함께 읽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봉중(미대 84) 동문은 제 1대 태조 이성계 부터 제 3대 태종 이방원까지의 당면한 정치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제 1 장 고려 말의 혼란과 이성계의 부상
14세기 후반, 고려는 외적의 침입(왜구, 홍건적), 부패한 권문세족, 국정 혼란 등으로 위기를 맞는다. 이성계는 유능한 무장으로 위화도 회군(1388년)을 통해 권력을 잡고, 정몽주 등 고려 충신들을 제거하며 새 왕조 창건의 길을 연다.

제 2 장 태조의 즉위와 조선 건국(1392년)
이성계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 조선을 창건한다.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유교를 국교로 삼으며 이상적 국가 체제 수립을 추진한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유교 이념에 입각한 관제 개편과 전법(토지제도) 시행, 한양 천도를 단행하며 왕조의 기틀을 닦는다.

제 3 장 개혁의 갈등과 왕자의 난 (1398년)
정도전은 태조의 어린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운다. 이에 반발한 이방원이 정도전과 방석을 제거한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태조는 퇴위하고, 둘째 아들 정종이 즉위한다.

제 4 장 정종의 즉위와 정국 수립 (1398~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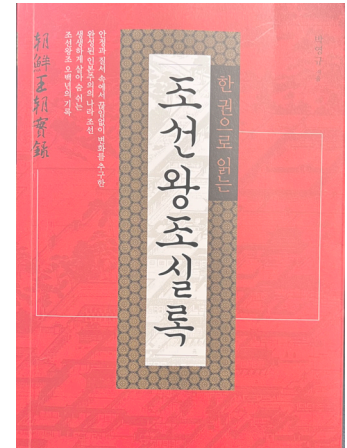
정종 (이방과)은 즉위 후 정치 안정을 도모. 그러나 이방원(다섯째)과 이방간(넷째)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한다. 정종은 2년 재위 후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긴다.

제 5 장 태종 이방원의 즉위 (1400년)
이방원은 왕위에 오르자 왕권 강화를 위해 개혁을 단행한다. 먼저 사병을 철폐하고 중앙군을 정비해 군을 장악하고, 왕권 중심의 조선 정치 체제를 확립한다.

제 6 장 권신 제거와 왕권 강화
관제 개편, 조세 정비, 관리 체계 정비 등으로 조선의 기틀을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강력한 국가로 변모시킨다.

제 7 장 호패법과 백성 통제 정책
1413년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하여 전국 백성의 신분과 거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 9 장 세자 책봉과 양위
태종은 자신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훗날 세종)을 총애하며 후계자로 지목한다. 충녕은 학문과 인품 모두 뛰어나며, 왕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1418년 태종은 스스로 왕위를 충녕에게 물려주며 상왕이 된다. 이는 평화로



독서와 토론에 열심인 뉴욕 북클럽 회원 동문들. 위쪽 사진은 ‘조선왕조실록’ 책 표지.

운 왕위 계승의 첫 사례다.

제 10 장 태조~태종 시기의 역사적 의의
이 시기는 조선왕조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로, 이성계는 건국자, 정도전은 제도 설계자, 이방원은 왕권 강화자로 평가받는다. 태종은 조선의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켰고, 이후 세종대에 황금기가 도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 세 왕의 통치는 조선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두번째 발표자인 김명혜(미대 78)동문은 14대 선조부터 17대 효종까지의 실록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14대 선조(1567~1608)는 명종의 서손이다. 방계 승통으로 인해 분당정치 시대가 도래했고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를 스승으로 여겼고, 율곡 이이는 실생활에서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중용정신을 이끌어냈다.

200년간 전쟁이 없던 선조 대에는 전쟁대비책이 없어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이순신의 활약 등으로 왜란이 끝나지만 전란과 가뭄, 흉년이 찾아온다.

16대 인조는 광해군의 폭정으로 일어난 인조 반정에 의해 등극한다.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그동안 독재했던 대북파 인사들에게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고, 친명 사대주의를 표명하며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으나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결국 청과 군신 관계를 맺는 삼전도의 치욕을 당한다. 이후 조선의 경제는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고 민간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송시열 김율 등 학자들이 등장하며 성리학의 발전기를 맞게 된다.

17대 효종은 북벌론을 근거하여 국력과 대동법, 농가 집성 등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꾀했다.

다음 발표자인 이민경(미대 84) 동문은 26대 고종(1852~1919), 27대 순종을 다뤄 격변기의 마지막 왕조의 실상을 다시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고종은 순조 때인, 1800년부터 시작된 안동 김씨의 60년 세도정치는 왕권이 극도로 약화되고, 특히 철종때 부터 탐관오리에 의한 농민 수탈이 절정을 이룬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크고 작은 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을 이어 받았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섭정대권 기간 10여년간,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 재정을 확립했으며 경제, 행정 개혁 등으로 세도정치의 폐해를 완전히 일소하는 성과를 거두어냈다.

하지만 무리한 경복궁 중건, 천주교도에 대한 지나친 박해 정책 및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한 채 지나친 쇄국정책을 펴으로써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변혁과 침략의 시대에 홀로 서 있던 임금인 고종은 망국으로 가는 여정 위에서도 왕조 부흥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갑신정변, 청일전쟁, 을미사변, 러일전쟁을 거쳐 을사늑약(조선외교권 박탈)을 당하면서도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그는 1907년에 강제되위를 당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의 장례에 모인 인산인해의 조선인들의 물결이 그 해 3.1운동의 바탕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조약을 맺으며, 27대 순종은 마지막 조선의 임금이 된다.

이날 북클럽 모임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천흥규(경제학과 84) 동문이 ‘마술적 사실주의의 창시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대표작 ‘백년만의 고독’(1967)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마르케스(1927~2014)는 이 소설로 이른바 ‘마술적 리얼리즘’의 영역을 개척

해 소설의 죽음을 말하던 20세기 중반에 소설의 소생을 불러왔고 198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현실과 환상, 사실과 허구가 초현실주의적 수법으로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비극적 역사와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을 유머에 녹여 낸 작품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촌인 우르술라와 호세 아르카디오는 근친상간으로 인해 ‘돼지 꼬리’가 달린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때문에 고향을 떠나 마콘도라는 고립된 도시를 세운다. 마콘도의 고립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자유시장의 등장, 내전, 철도 건설, 외국인 바나나 공장 건설 등의 사건을 통해 외부 세계와 접촉한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한 농장 노동자들이 대거 학살당하고, 폭풍우와 가뭄으로 농장이 망해 외국인 바나나 공장이 철수하자 마콘도는 다시 고독에 휩싸인다.

마르케스는 ‘라틴아메리카의 고독’이라는 제하의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라틴아메리카인의 고독은 서구의 세계관과 언어를 강요당 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라틴아메리카인의 시각과 방식대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가 끝난 후, 신응남 대표는 북클럽 올해의 추천도서를 동양 삼국(한국, 중국, 일본)의 철학, 사상, 문학 도서 중에서 선정한다고 발표하며 장자, 노자의 도덕경, 징비록(류성룡), 광장(최인훈), 아귀정전(루쉰), 허삼관의 매혈기(위화), 나는 고양어로소이다(나스메 소세키), 상실의 시대(무라카미 하루키)등의 책 소개로 정기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서울대 뉴욕 북클럽 제공〉

동문 92명, 푸른 잔디밭에서 '즐거운 시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지난 5월 8일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성황리에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92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푸른 잔디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동문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었다.

오후 1시 30분 참가자들은 샷건 방식으로 경기를 시작하기 전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했다. 채규황 동창회장의 따뜻한 환영 인사에 이어 각 홀로 흩어진 동문들은 아름다운 골프 코스를 가득 메우며 서로 덕담을 나누는 훈훈한 광경을 보여줬다.

이번 골프 대회에서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돋보였다. 채규황 회장과 양수진 수석부회장(차기 회장)을 비롯하여 상임 이사, 각 단과대학 총동창회장, 동문이 운영하는 용수산 식당 등 총 52명이 홀 스폰서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탰다.

특히, 오홍조 동문 부인이 꾸민 골프 대회 상품을 기증하여 풍성함을 더

52명이 홀 스폰서로 참여해 풍성한 대회 '에이지 슈터' 수상 동문들에 뜨거운 박수

했으며, 송미선(음대 89) 동문의 회사에서 1000달러를 기부하고 메디케어 보험과 연금(Annuity)에 대한 유익한 설명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대회에서는 특별히 '에이지 슈터(age shooter)' 상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특별 특별상을 통해 즐거움을 더하며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기여했다.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은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여자 근접상에는 노명호 동문 부인과 이종묘 동문, 남자 근접상에는 한효동 동문과 노명호 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여자 장타상은 남궁 베로니카(이대), 남자 장타상은 송태진 동문이 차지했다.

남자 메달리스트는 신호근 동문, 여자 메달리스트는 이상호 동문 부인과 제영혜 동문에게 돌아갔다. 특별상인 에이

지 슈터상은 55학번 한정현 동문과 64학번 서동기 동문이 수상하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팀 1등상은 송태진, 고정범, 이상호, 나용화 동문으로 구성된 7780팀, 2등상은 신호근, 윤흥원, 심원보, 이웅 동문으로 이루어진 8189팀, 3등상은 서동기, 김상찬, 이창우, 김정빈 동문이 속한 6466팀이 차지했다.

김희경 골프 총무를 비롯하여 성공적인 골프 대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한 임원진들에게는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다.

글=양수진(간호대 80 · 수석부회장)

****골프 스폰서 명단:** 채규황(회장), 양수진(차기 회장), 김병연, 임준택, 김상찬, 노명호, 김경무, 김동석, 김지영, 민일기, 박제환, 백혜옥, 서치원, 성주경, 오홍조, 이기준, 이병준, 제영혜, 최용준, 한귀희, 한종철, 방석훈(이상 상임이사), 이상강(미주 총동창회장), 김인종(서울대 미주재단 대외협력), 장동욱(간호대 회장), 정병혁(농생대 회장), 윤수현(대학원 회장), 김종하(문리대 회장), 안재엽(법대 회장), 신혜원(사범대 회장), 최은화(상대 회장), 나용화(생과대 회장), 김향자(약대 회장), 장진영(음대 회장), 백사훈(공대 회장), 이용훈(수의대 회장), 이찬영(치대 회장), 김자성(의대 회장), 이명규(미대 회장), 이호진, 이명선, 박종수, 홍성선, 김귀섭, 박정모, 박인희, 홍수산, 송미선, 한효동, 주준희, 정신, 이현림.

창립 50주년 기념 제1회 동문 바둑대회

6월 28일 LA한인타운서
우승자엔 한국 왕복 항공권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채규황)는 오는 6월28일(토) 오전 10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제1회 남가주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를 LA한인 타운에서 개최한다. 참가 자격은 서울대 학부나 대학원을 입학한 동문이다.

우승자에게는 한국 왕복 항공권이 수여되고 준우승자는 코스트코 기프트 카드(500달러), 3등 기프트 카드(300달러)가 돌아간다.

참가 신청 마감은 6월 21일이



고 최진석
(213-321-6428), 임
항균(213-399-2939)
동 문 에 게
연 락 하 면

된다. 기료, 점심, 다과를 포함한 참가비는 30달러다. 장소는 추후에 통보한다.

한편, 이번 바둑대회 개최 실무를 맡은 남가주 총동창회내 바둑동호회인 서기회(회장 임항균)는 지난 4월30일 온누리교회 인싱크 바둑반과 치른 준계 친선 바둑대회에서 4승1패로 승리해 서기회 명성을 높였다.



지난 5월8일 남가주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멋진 포즈를 뽐내며 기념촬영을 했다.

“봄 꽃구경도 동문들과 함께 하면 더 즐겁지요”

동문 가족 43명, 미션베이 해안길 따라 담소 나누며 산책

2025년도 두번째 행사인 ‘미션베이에서 산책’ 봄 야유회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3명의 동문 가족이 함께 했다.

지난 해 조금 일찍 저버린 봄꽃의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지라 올해는 보다 화사한 봄꽃들의 자태를 기대하며 작년보다 행사 일자를 조금 앞당겨 정했다.

지난 4월 19일 아침 10시 반에 만나 도넛, 베이글에 커피를 곁들여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다 전체가 모여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SDSU(샌디에고 주립대) 정치학과 조교수인 김재영 (외교학과 08) 동문이 이날 처음으로 동문회에 참석했고, 골프를 사랑한다고 한 하경진 (공대 화공과 95) 부부도 참석했다.

원래 4월부터 노란색 야생화가 만개하는 곳이라 식사 전 꽃구경을 위해 미션베이 남쪽 해안길을 따라 45분 정도 산책을 했지만 이번에는 좀 이른 시기였던지 원하는 만큼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들꽃을 볼 수 없어 살짝 아쉬웠다. 하지만 삼삼오오 얘기를 나누며 걷는 길은 여전히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르른 하늘에 좋은 날씨였지만 해변인지라 실새없이 세차게 불어대는 바닷바람에 다들 오들오들 떨면서도, 불고기, 잡채, 새우부추전, 도라지오징어초무침, 치킨wing 등으로 푸짐하게 차려진 점심 식사를 즐겼다.

행여나 음식이 담긴 은박 용기들이 바람에 뒤집힐까 음료수캔, 생수병 등을 무게추로 사용해 눌러 놓는 등 많은 운영진 분들이 수고해 주셨다. 그늘진 가제보에서 탈출하여 따뜻한 햇볕이 비추



샌디에고 지부 동문들이 지난 4월19일 ‘미션베이 산책’ 봄 야유회를 맞아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모임에서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동문들.



미션베이 해안길을 따라 봄 꽃구경을 하고 있는 동문 가족들.

는 놀이터 옆 테이블로 대피하신 분들도 몇몇 분 계셨다. 식사 후에는 북쪽 산책로를 따라 길을 예정이었지만 옷 속 깊숙이 계속 스며드는 찬 바람에 오후 계획을 취소하고 정겨운 담소를 같이 나

누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동문들과 산책도 하고 정겨운 담소도 나누며 언제나처럼 노선배님들로부터 값진 인생의 조언과 참된 가치들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 많이들 참석해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다.

글 = 박상호(치대 80) 샌디에고 지부장

동문 가족 18명 골프대회

다양한 부문 시상, 화기애애한 뒤풀이

샌디에고 지역 동문 가족들은 지난 5월 10일 토요일 The Heights Golf Club에서 2025년 SNUAASD 골프대회를 열었다.



챔피언상을 받은 박준식(왼쪽) 동문에게 박상호 지부 회장이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총 18명이 참가해 5개 조로 나뉘어 경기를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더운 날씨였지만 적당한 바람에 좋은 분들과 함께 즐거운 라운딩이었다.

경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par 3 홀에 근접상 이벤트를 진행했고, par 4/5 홀 중 4개 홀에서 장타 대결을 통해 긴장감과 재미를 더했다. 다양한 부문 시상으로 흥미를 높였고, 뒤풀이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수상하면서 축하를 받은 동문들 명단이다.

▶종합 수상: 챔피언 박준식 (공대 89), 2등 조윤희 (신동욱 의대 95 배우자) 3등 강인성 (공대 78), 4등 박상호 (치대 80), 메달리스트 문경미(강종구 경영 82 배우자)

▶Longest Driver: #2: 이문상 (공대 62), #7, #14: 김상태 (공대 96), #18: 장석윤 (하경진 공대 95 배우자)



지난 5월 10일 골프대회에 모인 샌디에고 동문들. 총 18명이 참가해 5개조로 나뉘 대회가 진행됐다.

▶Closest to Pin: #3: 김주성(농대 83), #9: 박성주(인문 95), #12: 이정석 (공대 87), #16: 조윤희 (신동욱 의대 95 배우자)

▶기타 시상: 일취월장상 이창종(사대

83), 엘리버드상 김선미(김종범 공대 83 배우자), 다버디상 박준식, 다파상 강인성, 다보기상 신육인(농대 87), 행운상 임춘수(의대 57)

글=김상태(공대 96) 경기위원장

선배들은 즐거운 봄 야유회 ... 학생 동문들은 친목 점심

미네소타 지부

지난 5월 3일 토요일 정오, 미네소타 지역 서울대학교 동문회(SNUAA-MN)의 학생 동문들이 로즈빌에 위치한 중식당 Szechuan에서 친목 모임을 가졌다. 총 10명의 동문이 참석해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교류의 시간을 보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일상과 학업, 연구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며, 동문 간 소통의 폭을 넓히고 더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5월 10일 토요일에는 미네소타 지부의 봄야유회가 Bloomington의 West Bush



미네소타 지부 동문들이 지난 5월10일 블루밍턴에 있는 공원에 모여 야유회를 했다.

Lake Park에서 있었다. 학기말 일정으로 많은 학생동문들이 참석하지는 못했

지만 총 22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환상적인 날씨속에서 바베큐와 점심식사를

즐겼다.

식사후에는 지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성구 동문에게 뒤늦게 감사패를 전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인사를 했다. 각자 소개하는 시간에는 동문회의 역할에 관한 진솔한 얘기들을 나눌 기회도 있었는데 동문회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어려움도 나누고 서로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한다는 선배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힘들 때 생각나는 가족 친구같은 모임이 진정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야유회를 마치며 모두 다같이 뒷정리에 나서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글=문성인(공대 88) 미네소타 지부장



지난 5월3일 중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는 미네소타대 재학생 동문들.



미네소타 지부 문성인 회장이 조성구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동문 가족 100여명 화창한 봄날 즐기며 피크닉

워싱턴DC 지부

서울대학교 워싱턴DC 지부(이하 SNU DC) 동창회가 주최한 봄 피크닉 행사가 지난 5월 10일(토), 메릴랜드 포토맥에 위치한 카더록 레크리에이션 지역(Carderock Recreation Area)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동문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화창한 봄날을 함께 즐겼다.

행사 당일에는 연일 계속되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와 선선한 바람이 이어지며 피크닉에 안성맞춤의 환경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

도시락 점심 나누며 즐거운 게임과 담소
황보한 동문, 자기 소개 특별 시간 큰 관심

으로 점심을 나누고, 게임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두 명의 동문이 자기 소개 시간을 통해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다. 황보한(화공과 69) 동문은 1968년 도미 후, 위성 제작사인 페어차일드 스페이스사와 위성 감리기관 MRJ에서 근무했다. 이후 한국통신(KT) 위성운용단장으로 재직하며 무궁화위성 1·2·3

호의 실무를 총괄한 바 있다. 2003년 다시 미국 메릴랜드로 이주하여 은퇴 후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은퇴 후에는 영문 장편소설 『별들의 만남』을 출간하고, 회화와 사진, 영상 제작 강의등 예술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황보한 동문은 “은퇴후의 취미활동을 위하여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론을 소개했다.

이종삼(문리대 54) 동문의 미망인 헬렌 리 여사도 참석해 고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이종삼 박사는 서울대 수학과 수료 후 도미해 전기공학을 전공했으며, 오클라호마대, 조지워싱턴대, 콜럼비아대에서 학문을 이어갔다. 헬렌 리 여사는 자신의 삶도 간단히 소개하며 “오래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덕담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세대를 넘어 동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소속감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취재=한정희<편집의원·미대81>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17@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암투병후 도예가로 변신한 손인숙 동문이 만든 찻주전자와 찻잔 등 도자기들. 손 동문의 도자기 스튜디오에서 도예를 배우고 있는 도예가 지망생들.

암 투병후 도예가로 변신한 손인숙(생과대 85) 동문 흙물 튀어 머리에도 옷에도 묻고 ... 자연 치유돼

백년은 족히 돼 보이는 고택이다. 구태여 GPS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퍼시픽 스트리트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여기구나' 금세 알아볼 수 있다. 스페니시 스타일의 건축미와 화려한 색채가 어우러져 마치 유럽의 어느 시골집같은 느낌을 준다. 'cookie cutter'의 집장사 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도자기를 굽는 투박한 손을 떠올렸는데 앞마당 정원부터 손질이 잘 돼있는 걸 보니 집 주인의 'green thumb' 재능도 예사롭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손인숙(생과대 85) 동문의 주거를 겸한 도자기 스튜디오는 오렌지 카운티 터스틴의 올드타운에 자리하고 있다. 6년 전 이 집이 매물로 나오자 한눈에 반해 그 날로 찔매었다고 한다.

뒷마당에 들어서면 돌담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세상에, 미국에도 돌담이 있나... 한국의 정취가 흠뻑 묻어나 웬지 친숙하게 느껴진다. 직접 쌓았느냐고 물으니 원래 있던 거란다. 돌담은 정겨운 공간을 만들어내 멋스럽고 정갈하다.

전시실은 리빙룸을 개조해 만들었다. 투박한 듯 아기자기하고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개성 넘치는 찻주전자와 찻잔, 머그잔 등 손 동문이 손수 빚어 만든 작품이다. 이제는 취미수준을 넘어 온라인 샵까지 오픈한 명실상부한 '도예가'가 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1주일에 이들은 도예 지망생을 지도한다. 그의 변신, 그 스토리를 듣기 위해 손 동문의 공방을 찾았다.

- 도예를 시작한 계기는?

사실 저는 전공이 의류학인데 학과 공부에 충실치 못해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학창시절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컴퓨터 언어를 좀 배웠습니다. 졸업 후 CAE(Computer Aided Education)와 e-Learning을 하는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취직해 일을 했지요. 지금까지는 주로 컴퓨터 관련 일들을 해왔다고 할 수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은 저에게 큰 일이 생기기 이전의 일들이고요. 지난 2008년 무렵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시경



손인숙 동문(오른쪽)과 손 동문을 적극 후원하는 남편 정종선 동문.

을 통해 종양을 처음 발견했을 때만해도 상당히 진전이 되어있을 거라는 의사의 소견으로 꽤나 위험한 단계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일 이후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되도록이면 접어두고 아니면 잊어버려 애를 쓰고,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일상화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도자기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지요.

- 직접 그릇 만들고 구우니 뭐가 좋나요?

물레를 돌리다보면 어린 시절 흙장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흙물이 튀어서 머리에도 묻고 옷에도 묻는 꼴이 완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죠.

사실 저는 도자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겁고 투박하고 다른 그릇들과 어울리지 않아 시작하고 일 년여가 지날 때까지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기만 할 따름이었죠. 물레를 돌리고 흙을 만지는 그 순간은 아무 잡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4시간 5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심취하게 되는 ... 그 매력에만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날 내가 직접 써보지 않고는 내가 만든 것의 장단점을 도저히 알 수가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부터 요리접시까지 제가 만든 것들로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도자기를 시작한지 3년이 되자 웬만한 그릇이나 차 주전자, 화병 등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었죠. 하지만 갈증은 갈수록 커지네요. 정식으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취미로 시작을 하여 테크닉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도 부족하고 ... 아직은 갈 길이 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갈 길이 멀어서 좋습니다. 더 알고 익혀야 할 것들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몇 년 만에 성취될 수 없는 일이라서 좋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재택근무중인 남편 정종선 동문이 2층에서 내려와 취재팀을 반갑게 맞았다. 물리학과 84학번이다. 안 동문에 따르면 남편은 외조의 끝판왕이다.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다. 작품에 대한 평가도 잘 해준다.)

- 가장 큰 보람은? 또 어려운 점은?

도자기를 통해서 내 나라의 전통을 드러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옹기도 만들고 김치병도 만들고 차주전자도 만들

면서 전통과 현대를 오갈 수 있어 좋습니다. 단지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이곳의 방식을 적당히 접목시켜 나의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 제가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의 도예가들에게 일본 도자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도예가들이 시노니 테모쿠니 하는 일본에서 시작된 유약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제 주위 동양분들의 반 이상이 일본분들입니다. 그들의 도자기 사랑이 남다른 듯 합니다. 이러한 힘이, 제가 그러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볍고 편한 그릇만을 선호하여 우리 도자가 우리의 반상에서 사라져 갈 때 그들은 아기자기하고도 알록달록한 자기들의 모양, 자기들의 색채를 개발해내며 일반인의 밥상에서도 곳곳에 버티온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 수강생도 있다고 들었어요. 몇 분이 나 되나요?

물레가 4대예요. 그러니 한번에 4명이 와서 공부해요. 일주일에 화 금 이틀 스튜디오를 오픈합니다. (공방은 거라지를 개조해 쓰고 있다. 물레와 전기 가마가 설치돼 있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뒷마당이 넓적해 수업이 끝나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다.)

- 직접 만든 도자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샵도 운영하신다는데.

Etsy라는 핸드메이드 온라인 쇼핑몰에 저의 샵을 오픈했습니다. 이름이 저의 이름 앞부분을 따서 만든 InsCeramics.Etsy.com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물건이 많지 않아 약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도자가 오크마(Orange County Museum of Art)에도 전시돼 있어요. 반응요? 좋아요. 이제야 비로소 도자기 작가의 대열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InsCeramics 온라인 물에는 손 동문이 만든 도자기를 구입한 고객 135명이 후기를 남겼다. 거의 모두 최고 등급인 별 다섯개를 매겨 제품의 완성도를 입증했다.)

글·사진=박용필(문리대 66)

“오페라 가수는 부업, 찬양 선교가 본업이에요”

세계적인 테너로 우뚝 선 이용훈 동문

특별한 선교 활동을 들어본다. 서면 인터뷰와 기사 일부를 정리했다.

서울대 동문 중에서 세계적인 테너는 적지 않다. 종교인도 많다. 하지만 이용훈(음대) 동문은 본인 표현대로 ‘미쳤단 소리 들을 만큼’ 열정적으로 개신교 간증 무대에 선다. 그의

이용훈(음대 94) 동문은 두 가지를 잘 하고 있는 성악가다. 뉴욕 생명샘 교회 찬양선교사로 아내 이은영씨와 함께 많으면 1년에 3~4차례씩 남미 등에서 콘서트를 연다. 또한 그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이태리 라스칼라, 로마, 영국 로알 오페라,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뮌헨, 필른, 스페인 마드리드 등 세계 주요 극장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에는 모교 음대 성악과 교수가 되기도 했다. 성악과가 스캔들로 교수 8명중 4명이 물러난 상태라서 성악과 정상화의 신호로 교편을 잡기도 했다. 교육과 무대 경험의 조율이 어려워 더 공부하고 배워 나중을 위해 물러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삶의 부름 받은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오페라 가수라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기에 음악 영역 안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을 자연스럽게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콘서트 홀이나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하는 무대 엔지니어, 아티스트 등 관계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세계 곳곳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흠어져 활동하는 수많은 예술인들과 몇 주에서 몇 달간 함께 호흡을 맞추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연주자 동료들과 합창 단원들 뿐만 아니라 메이컵 아티스트, 의상 담당자 등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있다.

또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엽서 모양의 공연 사진을 넣어 만든 복음 카드를 준비한다. 카드에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각자 필요한 메시지를 담는데 항상 타이를 메시지는 Jesus loves you(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한다.

그리고 더불어 작은 선물로 케이크나 쿠키, 초코렛 등을 함께 준비해서 전달한다. 대체적으로 이런 활동은 첫 번째 공연을 오픈할 때 이뤄지며 그때는 서로 첫 공연을 축하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이뤄지게 된다. 이 동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귀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순간으로 만든다.

또 다른 선교는 세계 곳곳에 공연으로 방문하게 되는 지역 로컬 한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뤄진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나눈다.



세계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활약하는 이용훈 동문의 공연 사진들에 적힌 “Jesus loves you”.

뉴욕 메트·밀라노 라스칼라·런던 로알 오페라 등 세계 곳곳 주요 극장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하면서 공연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과 복음 전해 성대 다치는 사고 당했으나 한달 만에 완쾌 ‘기적’

최근에는 시애틀 물댄동산 교회의 예배에서 참여해 은혜를 나누었다.

이용훈 동문이 그의 웅장한 목소리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극적인 성장기도 유명하다. 그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공부는 매우 못해서 “나중에 구두닦이나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1987년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중2 소년은 “주님을 위해서 구두를 닦겠다”고 눈물로 약속했다.

노래에 자신이 있던 그는 성악을 하는 친구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에 배정 좋게 원서를 제출했다. 필기 성적은 엉망이었지만 실기에서 음대 전체 수석을 차지해 교수들이 긴급회의를 열었고, 결국 필기와 실기를 합산한 평균 점수를 반영해 입학의 감격을 안았다.

하지만 서울대 음대 생활4년은 실망과 상처, 실패로 점철됐다. 유일하게 잘할 수 있었던 ‘성악’을 포기하고 1년 반을 방황하며 몸무게 마저 98kg가 60kg로 줄었다. ‘사람을 위해서는 노래하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던 그는 “나를 위해서 노래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다. 전액 장학생으로 학비는 해결됐지만,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지원이 끊겨 굶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총신대에서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초교과 자비량 선교단체 ‘베다니 선교회’에서 만난 아내 이은영의 격려로 마음을 잡았고, 2004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성악 경연대회와 2006년 푸치니 국제 콩쿠르에서 잇따라 우승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다. 2008년 3월 21일 성대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오프닝 공연 도중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이 시간 저를 위해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나요”라고 절규했다.

그때 그가 계속 전도했던 오케스트라

의 바이올린 연주자 청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피 값이 없으면 생명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체험했다.

1주일 후 베를린의 세계적인 성대 전문의는 당장 수술을 하고 5개월간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는 “깨끗함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귀국했고, 그로부터 한달도 안돼 성대가 완쾌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환호하면서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 대신 “Jesus loves you”를 써주기 시작했다. 종교성을 드러내지 말라는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찬양 선교가 메인이고, 오페라 가수는 사이드잡이다.”

세계 무대에서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오페라 작품들의 주연을 꿰차고 있는 테너 이용훈. 그러나 그는 뉴욕 생명샘 교회의 ‘찬양 선교사’라는 이름을 더 사랑한다. **장병희 편집위원**

◆테너 이용훈 약력

- 2010, 2013. Wiener Staats Opera
- 2010-2015. The Metropolitan Opera
- 2011. La Scala
- 2011. Dresden Semperopera
- 2011, 2012. Berlin Deutsche Opera
- 2011, 2015. Opera di Roma
- 2012, 2014, 2015. Bayerische Staatsoper
- 2013, 2015. London Royal Opera House
- 2013, 2014. Zürich Opera House
- 2013, 2015. Sydney Opera House
- 2013년 3회. Hamburg State Opera
- 2023.10. 오페라 투란도트
- 2024.8. 오페라 오텔로



오페라 가수는 부업이고 찬양선교가 본업이라고 말하는 이용훈 동문(뒷줄 가운데)이 최근 시애틀 물댄동산 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교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어렵다고 벡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현실



이우일
(공대 72)

SNU포럼 3월 강연 지상중계

한국의 과학기술 현황과 정책 방향

2025년 3월 SNU 포럼 초청 강사는 이우일 (공대72) 동문이다. 이 동문은 미시간대 공학박사 출신으로 모교 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공대 학장, 연구 부총장을 역임했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과총) 회장과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날 강연은 한국 과학 기술의 오늘과 내일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는 기회였다.

1.한국 과학기술의 현주소

*인구대비 연구원 수 1위

우리 현주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적어도 정량적 숫자로만 보면 나쁘지 않다. 기초 과학 역량 세계 8위, 주로 과학 기술 논문 수의 근거한 것이다. 수학 노벨상인 필즈상은 2022년에 탔다.

인구 대비 연구원 수는 세계 1위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즉 R&D 예산이다. 1964년에 20억 원이었고 30년 전으로 가면 1992년에 1조쯤 됐다. 그런데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 25조를 넘어서 30조원 가까이 올라갔다. 2023년에 30조가 넘었다. 그러다 2024년에 R&D 예산 파동으로 푹 떨어졌다.

보기에 따라서 5조쯤 떨어진 것일 수 있고 3조쯤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R&D라고 볼 수 없는 예산이 1조 8천억 원, 약 2조원, 예를 들어 대학 지원금 같은 것이 전부 R&D에서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2조원쯤 뺐었다. R&D에선 삭감하면서 그것까지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다.

겉보기는 5조 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3조 원 정도 준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늘었다. 2조원을 더한다면 2023년보다 2025년 예산이 약간 더 늘어났다. 2조원을 빼니까 약간 줄어든 것이다. 30조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R&D 예산 파동

무엇보다도 R&D 예산 삭감 소동을 보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R&D 예산이 메이저 언론의 탑 뉴스로 1면에 나온 것이다. 과학 기술 관련 이슈가 노벨상을 탔다면 모를까, 과연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이 1면에 보도를 해 줬을까 싶다.

정부 R&D예산은 두 개로 나뉜다. 주요 R&D 예산이 있고 일반 R&D 예산이라고 있다. 일반 R&D예산에는 정책 연구비 등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에서 컨트롤한다. 5조 원쯤 된다. 주요 R&D 예산은 R&D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추이가 2025년에 24.8조원, 2023년에 24.7조원이다. 깎기 전보다 약간 더 늘어난 수준이다.

*논문 발표가 좋은 지표인가

피인용 상위 논문이 좋은 지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인다. 과학 기술 프론티어 개척 역량이 최고 선진국 대비 80% 수준이다. 상당한 열세다. 우리보다 더 적은 돈을 투입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끊임없이 국회를 필두로 하는 정치권,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가 계속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 하는 것이냐? 그러고 있습니다.”

MDPI는 스위스에서 발행하는 오픈 액세스 저널인데 첫째, 온갖 분야가 있다. 둘째, 굉장히 빨리 퍼블시가 된다. 속도가 생명이다. 한 달 이내 나온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뷰가 엉성할 수밖에 없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프레더 저널이라고 부른다. 발간료가 굉장히 비싸다. 그것으로 돈을 번다. 그래서 과학 기술 교육 일각에서는 게재를 무시한다. 반대 운동이 미국에도 있었다. 게재된 논문 수가 전체 논문 수의 세계 평균이 7.8% 쯤 된다. 그러니까

국한데 모두 따라 잡혔고 IMD 국가 경쟁력 순위 추이를 보니 계속 답보 상태가 있다. 그래서 과학 경쟁력이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다시 말해서 과학 경쟁력이라는 것은 논문이다. 기술 경쟁력은 산업화이다. 산업화에서 돈 벌고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생기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선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R&D 예산을 재조정 하려고 했던 것이다. R&D 예산을 그냥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

상당수 사회문제는 성장 정체가 원인
생산성 낮은 논문은 ‘빛 좋은 개살구’
‘성공률 99%’라는 기막힌 연구지원
이러다가 한국 대학들 모두 문 닫는다

굉장히 많은 논문이 여기 게재 됐는데 세계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많은 기관이 훨씬 상회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7.4%)는 조금 낮다. 연세대(9.0), 고려대(10.5)는 높다. 건설 연구소에서 나오는 논문의 절반 정도가 MDPI 논문이다.

이런 상황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MDPI 논문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우리나라 연구 개발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하고 궤를 같이 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인데 이때 R&D 예산을 굉장히 늘렸다. 정권 시작할 때 20조였는데 5년 후에 30조가 넘었다. 그러니까 50%가 늘어난 것이다. R&D에서 5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인데 물론 일본과의 마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다.

이렇게 늘면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criteria)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전 하고 똑같았다. 다시 말하면 논문 수, 특허수 등이 기준이었다.

일단 연구비가 늘었으니 더 많은 논문을 퍼블리시 해야 되고 논문을 마구 퍼블리시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논란이 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시사점은 성과 평가 기준 같은 것도 모두 바뀌어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몇 십 년 전 성과 평가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10년도 넘었지만 정책에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기술 수준 조사를 했더니 중

커뮤니케이션도 문제였다.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 됐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10~15% 정도 줄어들었다.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다. 일률적으로 줄여 버린 탓이다. 그런데 그게 가장 쉽다. 확실적으로 평균의 10%~15%를 날려버린 것이다. 그렇게만 됐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더해서 ‘국제 공동 연구’라는 주문이 있었다. 확 활성화 시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산을 더 끌어왔다. 그런 분야에서 특히 불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생사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20조에서 30조 원까지 너무 급하게 늘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인식을 같이 한다. 그렇다고 3조 씩 급작스럽게 삭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원상 복구 시켜 놓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예산 분배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예산부터 줄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한국 기술 80% 수준

한국의 기술 수준이 답보 상태에 있다. 세계 최고 기술 수준에 대비해서 80%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계가 있다. 문제는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세라고 생각된다. 추세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다.

또 다른 것은 연구원 및 인구 대비 논문 숫자다. 연구원 100명당 논문 발

표 숫자와 인구 만 명당 논문 발표 숫자다. 다른 나라는 비율이 적어도 2대 1 정도인 것이 정상적인 추세다. 그런데 한국은 두 수치가 똑같다. 연구원이 인구 대비해서는 많은데 연구원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 비율이 옳다.

정부의 문제 진단은 첫째, 당장의 성과를 내기에 급급하다. 전체 연구 과제가 7.6만 개로 증가했는데 배가 증가한 것이다. 7.6만개의 연구 과제 중에 절반 정도가 1억 원 미만 소형 과제다. 다시 말하면 뿌려주기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치권에서 보면 “모두 나눠 갖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통계다. 하여튼 착시가 있을 수가 있다. 정부의 진단에는 국민 체감 대표 성과로 반도체 개발을 꼽았는데 제가 보기엔 딱 하나, 노벨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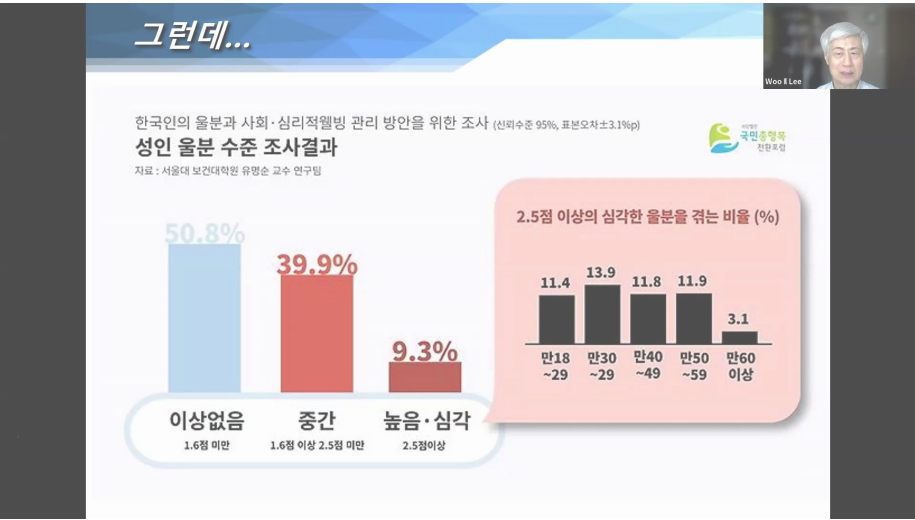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일관되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는 노벨상 언제 타냐”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인데 약간은 후진성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R&D 예산이 많은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

*연구하면 성공인데 성과는?

두번째는 실패 위험성이 높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전체 R&D 성공률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99.1%이다. 이것은 상식 밖이다. R&D만 하면 모두 성공인데 “그러면 성과는 어디에 갔냐” 라는 질문이 따라와야 한다. 100% 성공하는데 성과는 어떻게 됐냐는 얘기다. 정치권, 정부 모두 그렇게 나온다.

예를 들면, 국제 공동 연구는 잘 안된다. 첫째, 규모가 작고 둘째, 안 그래도 영어가 딸리는데 국제 공동 연구하면서 신경 쓰기가 싫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연구비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국제 공동 연구가 가능하려면 주고 받아야 하는데 미국의 최고 기술을 가진 연구소에게 우리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줄 게 없다. 일방적으로 배우려 든다면 상호 도움이 되는 연구가 어렵다. 결국 패스트 팔로워식 R&D를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정부는 구호를 외치지만 실제 하는 일은 전혀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연구 재단이 1년에 7, 8조 원쯤 나눠 주며 셀 수 없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또 각 정부 부처마다 연구비를 나눠주고 성과 평가하는 부서나 기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자기 사람을 보낼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R&D 예산이라



는 것은 큰 제약이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굉장한 난맥상이 있어서 여러 해 전부터 줄여야 된다. 일관된 철학 아래에 일관된 방향으로 과학기술 예산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또 이런 기관들은 전부 직원들이 꽤 있다. 전부 노조에 가입돼 있어서 없애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어려움이 있다.

2.해결을 위한 방향
*석세스 트랩에서 탈피해야

패스트팔로워에서 퍼스트무버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관료나 그 사회에서 석세스 트랩(Success Trap)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현실은 치타처럼 달리는 데 정책은 거북이다.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가 그 다음 닥치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를 두고 한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데서 성공적으로 잘 살게 됐는데 우리가 닥치는 지금 맞고 있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까? 토인비는 확률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게임 체인저가 나와서 이전에 산업계를 좌지우지하던 여러 가지 기술이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 바뀌고 있다.

완전히 판이 새로 짜이는 상황이니 어떻게 보면 출발선이 비슷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LLM 챗GPT, CoPilot 같은 것을 똑같이 따라서 잡을 수는 없지만 특정 분야 니치 쪽을 파고 들면 충분히 우리의 몫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년전 보고서가 아직도 유효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예를 하나 보면, ‘국가 R&D 체제의 획기적인 재정립이 절실하다. 우리는 창조형 성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는 보고서다.

‘패스트 팔로워에서 포스트 무버로 지금 우리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 로 지금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다.

큰 문제가 있다. 문제는 보고서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보고서를 받은 사람의 문제인데 보고서는 2010년에 나온 것이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R&D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약간씩 바뀐 건 있지만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우리는 논문 많이 쓰고 특허 많이 내고 기술 이전 실적이 몇 개나, 중소기업 몇 개 지원했냐로 연구 개발의 성과를 측정했다.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한 70% 가야 된다. 나머지 30%는 적어도 처음 해보는 걸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체계가 적립돼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는 혁신의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지시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조금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미리 막아야지 해서 규제를 만든다.

*잘못을 처벌하면 되는데 아예 규정으로 막아

오래전 서울대에서 있었던 일이다. 미국에 출장을 계획했는데 학교 규정이 1년에 2주 이상은 해외 출장을 못 가게 돼 있었다. 규정은 합산시 14일인데 따져보니 17일이 됐다. 해외 출장을 신청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포기했다.

그런데 규정이 왜 강화가 됐는지 알아봤다. 예전에는 1~2주일 정도는 넘어갔다. 어떤 사람이 해외에 백 몇 십 일을 체류했고 그것이 감사에서 걸렸다. 대개 걸리면 징계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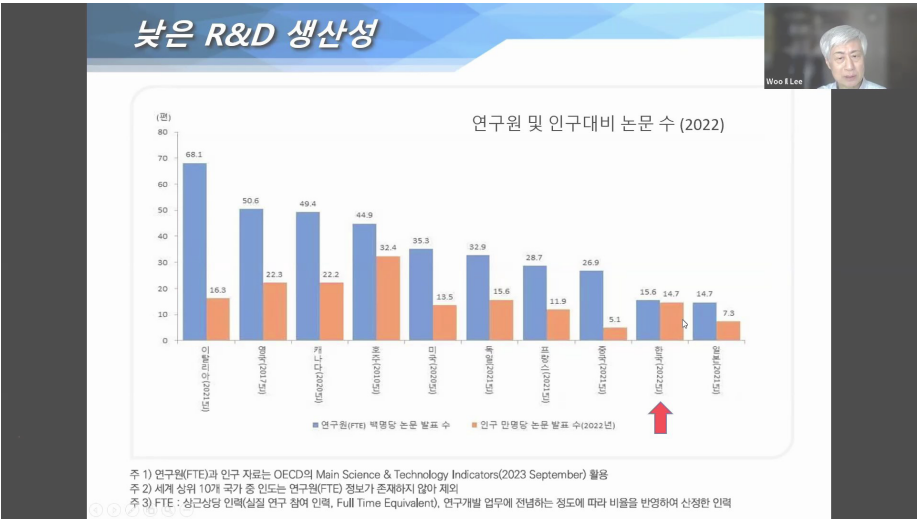
“왜 네 마음대로 학교에 없고 나가 있었냐” 라고 하면 되는데 당시 그 사람은 봐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게 규정을 강화해버렸다. 이런 규제가 비일비재하다. 미리 막아버리는 것이다.

수많은 부처에서 각각 따로 R&D를 하는데 그 혁신 역량을 결집할 국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 본부라는 체제를 만들었는데 결국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모두 컨트롤 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처에서 와서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모두 나눠 준다. 이런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케네디의 아폴로 계획

‘어떻게 바꾸느냐’ . 참고할 실례는 굉장히 많다. 대표적인 것이 아폴로 계획이다. 미션을 정립한다. 케네디 대통령이 라이스 대학에서 to go to the moon 하고 60년대 말까지 달에 사람을 보내고 살려서 데려오겠다는 것을 선언했다. 그때는 모두 미친 짓이라고 그랬다.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권한을 모두 위



임했다. 나사에서는 소위 블루 스카이라서치도 용인했다. 실패를 용인했다. 로켓을 두 개 쏘서 하나 떨어지면 하나 떨어진 것은 책임을 묻지 않고 성공한 것을 갖고 다음으로 넘어갔다.

미국의 전통인 듯 싶다. 모험적 아이디어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성공, IT 비즈니스의 성공 때문에 훨씬 더 세졌다. 예를 들어 10개를 투자하면 한 두 개만 성공하면 나머지는 실패해도 상관없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 10개 투자해서 1개 성공하고 9개 실패했는데 합쳐서 10배를 벌어도 소용없다. 10배를 벌어도 9개를 실패했기에 국정감사, 감사원이 들이닥친다. “왜 9개 실패했냐” 고 문책하고 공무원이 관련이 돼 있으면 옷 벗고 심지어 배임으로 형사 고발을 당한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테슬라로 몇 백배 보상

미국은 솔린드라하고 테슬라하고 같이 미국이 지분 보증을 했다. 정부가 솔린드라를 스캔들 수준으로 해서 상원 청문회도 열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수십 명이 아마 감옥에 갔을 것이다.

테슬라의 성공이 솔린드라 투자 실패에 몇 백 배를 보상하고 남았다. 반면 우리는 이런 체제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하고 정부하고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

우리나라 연구비 투자에 총액이 113조 원인데 이중 민간이 76.6%를 차지한다. 나머지 30조가 정부가 부담한다. 이제 민간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부가 거의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좋은 조그만 중소기업을 M&A 해서 사버려야지 하고 의향을 갖고 있어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법으로 못하게 돼 있다. 미국 구글이 수십 개, 수백 개를 사들이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하다.

*아마추어 정부 주도가 문제

생태계 이코시스템을 조성해야 되는데 조성할 생각이 없고 정부가 전부 쥐고 돈 나눠 주려고 한다.

정부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이 포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민간이나 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년마다 바꾼다. 2년마다 순환 보직, “왜 너만 편한 데 있냐” “다른 사람도 편한 데 있지” 아니면 “왜 너만 꿀 보직이냐”고 한다. 계속 바꾸니 전문성이 생길 수가 없다. 예

를 들어 원자력으로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미국은 20~30년 동안 그 일만 한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우리는 1년 경력자가 나간다. 미국에서 얘기하면 전부 배울 수밖에 없다. 협상이 아니고 학습이다.

우리나라는 싱크탱크가 없다. 시스템이라는 조직이 있고 스텝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가 컨트롤하는 정부 기관이다. 정부 입맛에 맞지 않은 것을 만들 수가 없다. 중기 장기 기획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다 바뀐다. 과학기술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줄기차게 일관되게 나가야 되는데 싱크탱크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정부 부처 간의 장벽이 없어야 되는데 13개 부처 청에 17개 연구 관리 기관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 체계가 전부 단년도(한해살이)이다. 예산이나 연구 과제도 1년 단위로 끊어지고 1년 만에 소진해야 된다. 그래서 다년 예산 체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안된다. 기획재정부가 칼날을 휘둘 수 있는 고유 권한이어서 쉽게 놓지 않는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다.

*온라인화가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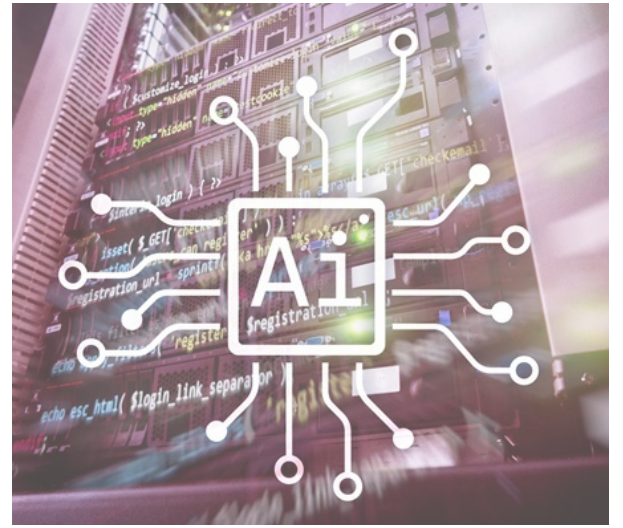
온라인화가 시급하다. 미국에는 온라인 학사 학위가 많다. 1등이 UCLA다. 온라인 학위 2등이 퍼듀대학교다. 명문 대학이 이미 차지하고 있다.

다만 MIT나 하버드는 온라인학위를 안 하고 있다. 만약 조금 재정이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오퍼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대학이 몇 개가 없을 것이다. 특히 학부, 석사까지는 단 한 개도 없을 듯 싶다.

서울대는 공중 분해된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어떠한 하면, “사교육 카르텔 즉각 척결하자”가 화두다. 지금 대입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에서 수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어렵네 쉽네” 이런 주장으로 시위한다. 이것이 심지어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이다.

미국 MBA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AI와 협업해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대학 입시에서 “애들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수학을 좀 쉽게 하자” 수학 수업 시간을 줄이고 특히 AI에서 중요한 행렬 벡터 같은 것은 어려우니까 가르치지 않는다.



(왼쪽부터) 1800년대 후반 주요 교통수단으로 말뚝대란을 야기했던 마차. 1900년대 고갈 위기를 자아냈던 석유 시추 모습. 맨 오른쪽은 근래들어 엄청난 양의 에너지 소모로 환경 문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말뚝 대란에서 석유 위기 그리고 AI 에너지 문제까지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삼은 인류의 창조적 혁신



송명국(철학 90)

캘스테이트 롱비치 경영학과 교수

1800년대 후반, 세계 주요 도시들은 심각한 환경 문제에 봉착했다. 바로 ‘말뚝 대란’이었다. 교통의 주요 수단이 마차였던 당시 런던에서는 매일 5만 마리 이상의 말이 도심을 누볐고, 약 17만 마리의 말이 활동했던 뉴욕시에서는 하루 백만 kg이상의 분뇨가 발생했다. 거리는 악취로 가득 찼고, 들끓는 파리는 질병의 온상이 되었다. 수십 년 내에 런던과 뉴욕이 분뇨로 뒤덮일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말뚝 위기는 오지 않았다. 말없는 차 즉, 자동차의 발명으로 해소된 것이다. 헨리 포드에 의해 대중화된 자동차가 전기 트램과 함께 마차를 대체함에 따라, 1912년 무렵, 말은 도시 교통수단으로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고 분뇨 악몽도 사라졌다.

20세기, 석유 고갈 문제가 다시 인류를 사로잡았다. 1859년 석유가 발견된 직후부터 사람들은 줄곧 석유가 곧 고갈될 것이라고 했다. 1874년 미국에 남아 있는 석유는 단지 4년 치에 불과하다고 했고, 1914년에는 10년 치, 1940년에는 15년치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석유 고갈론 역시 현실화되지 않았다. 인류는 혁신적인 시추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유전들을 찾아냈고, 추출 효율성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1970년 6,120억 배럴로 추정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은 2000년대 중반에는 1조 2천억 배럴로 전망되었다. 셰일 혁명, 그리고 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의 부상으로 인해 석유 사용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오늘날 논의의 초점은 오히려 “석유를 계속 사용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이 초래할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세상을 놀라게 한 챗GPT의 성공은 더 많은 데이터, 더 큰 모델로 요약할 수 있는 ‘규모의 확장’이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1750억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오픈AI의 GPT-3를 훈련시키는데 소모된 약 1,300MWh의 전력은 120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배출하는 것과 비슷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

로 평가된다. 이는 단지 훈련에 필요한 것이고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

하지만 2025년 딥시크(DeepSeek)는 다시 한번 인류가 어떻게 당면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딥시크는 규모의 확장보다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집중하여 최신 AI 모델을 훨씬 적은 비용과 자원으로 구현했다. 즉,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모델 압축 기술, 추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토큰(단어)을 동시에 예측하는 기술,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식 미세조정과 강화학습을 결합한 훈련 방식, 여러 개의 “전문가” 서버 네트워크로 구성된 모델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통해 추론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GPT-4는 16,000개 이상의 고성능GPU를 사용했는데, 딥시크는 이보다 성능이 낮은 2,000여개의 GPU만을 사용했으며, 에너지 소비량도 약 90%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AI 민주화와 지속 가능한 AI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의 AI 데이터 센터 관리시스템은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40% 절감

했고, 풍력 발전소의 발전량을 예측하는 AI 솔루션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테슬라의 AI 배터리 관리시스템은 충전 및 방전 주기와 온도 제어를 최적화하여 배터리 뿐만 아니라 차량의 에너지 효율성과 부품 수명을 극대화한다. 이처럼 대규모 에너지를 소모하는 AI는 역설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인간 두뇌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연구도 지속 가능한 AI 시스템 개발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인간 두뇌는 전구를 희미하게 밝힐 수 있는 정도의 전력으로 복잡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대조는 현존 AI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잘 보여 주는데 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와 신경과학의 발전은 효율적인 AI 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측들이 빗나가는 이유는 혁신의 가능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비관주의는 인간의 창의적 잠재력을 과소평가한다. 1890년대 말뚝으로 뒤덮였던 거리에서부터 에너지 소모가 큰 AI까지, 역사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인류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마다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바꾸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왔다.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7대 이상강 회장과 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LA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김학천
(치대 71)

광활한 시베리아 설평원을 가로질러 누군가를 실은 검은 차 한 대가 강제노동수용소에 도착하고 곧이어 그를 찾는 방송이 나간다.

“키릴 라코타, 죄수번호 000. 소장실로 오라.” 호출된 키릴은 거기서 모스크바로 이송되고 자신을 그 처지로 내 몰았던 공산당 서기장과 만난다. 서기장은 모종의 조건하에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겠다고 한다.

한때 우크라이나의 대주교였던 키릴이 소련의 미움을 사 정치범으로 죄수생활한 지 20년만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 바티칸으로 보내진 그를 교황은 동료들 총살하는 현장에서도 죽음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의 용기와 신앙을 높이 치하하며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에 머물게 한다.

얼마 후 교황이 갑자기 서거하게 되고 콘클라베가 열려 7차례 투표를 하지만 새 교황 선출에 실패한다. 현대 예상치 않게 유배형까지 지낸 공산권 출신의 자신이 후보에 오르게 되자 외부와 단절된 채 20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던 자신이 위기에 처한 지금의 세계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에 당혹한다.

거듭 거듭 거절함에도 결국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된 그는 양심과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일할 것을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대관식에서 전세계를 향해 외친다. “바티칸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돕겠다.”

그는 틈틈이 남모르게 일반 신부복 차림으로 교황청을 빠져 나와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는 가 하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하려는 중공 지도자와 만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힘겨운 줄다리기도 한다. 1963년에 출간된 모리스 웨스트의 소설 ‘어부의 자리(교황

의 자리)’ 이야기이다.

소설이 출간 된 15년 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탄생했다. 우연히도 그의 배경과 상황 모두가 거의 일치해 이 작품은 일종의 예언적 글로 비쳐졌다. 그도 애당초 후보대상엔 있지도 않았다. 바오로 1세가 별안간 서거하고 후계자를 뽑는데 실패하자 중도적 인물이었던 그가 예상치 않게 선출되었던 것이다.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국가 출신의 인물이 선출되면서 그의 조국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구유럽의 체제가 막을 내리고 소련까지 붕괴되었다. 이 책은 당시 닉슨 대통령에게 감명을 주었고 급기야 중공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로써 중공은 죽(竹)의장막 고립에서 세계 속으로 나오게 되었다. 오늘의 중국이다.

1984년 한국을 방문한 첫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방한시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엎드려 입맞춤을 해 한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뒤를 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명석한 학자이자 최고의 이론가로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사임하고 교황직을 물려주는 선례를 남겼다.

이에 따라 1282년 만에 비유럽권이 최초의 신대륙 출신으로 제266대 교황에 오른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빈하고 소탈한 행보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허름한 구두를 신고 순금 대신 철제 십자가를 가슴에 걸고 방탄막 없는 소형차를 이용하며 화려한 관저가 아닌 소박한 일반 사제들의 공동숙소에서 살았는가 하면 마약과 폭력이 흔한 우범지대도 개의치 않고 아무 동행없이 빈민촌을 찾았다.

성 바오로 2세에 이어 두번째로 한국을 찾은 ‘가난한 자들의 목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 88세로 선종했다. 나무관을 택하고 ‘장식 없는 무덤에 이름만 새겨 달라’고 한 교황은 돌아가시기 전 ‘전쟁을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13세기 ‘빈자의 성인’으로 낮은 곳에서 살다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딴 그대로 마무리도 아름답다. 성하(聖下)의 영원한 안식과 평온을 빈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오페라 ‘스칼리아/긴즈버그’의 교훈

코믹 오페라 ‘스칼리아/긴즈버그(사진)’의 하이라이트는 테너와 소프라노가 함께 부르는 마지막 듀엣 장면이다.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톤으로 노래하지만, 그 소리는 달콤하고 완벽한 화음이 되어 귓가에 속삭이듯 다가온다. 감동에 벅찬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긴 박수를 보낸다. 10년 전, 버지니아주 캐슬턴에서 이 오페라가 초연된 당시의 풍경이다.

이 오페라를 만든 이는 중국계 작곡가 데릭 왕. 하버드와 예일에서 음악을 전공한 뒤, 메릴랜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이색적인 이력의 소유자다.

그 역시 이날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관중석에서 한 여인을 발견한 왕은 흠칫 놀란 표정을 지으며 눈짓으로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입가에 얹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에게 “RBG!” 환호가 쏟아졌다. 바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였다. 오페라 속에서 긴즈버그의 상대역인 앤터닌 스칼리아는 당시 로마 여행 중이어서 공연에 참석하지 못했다.

스칼리아는 ‘보수의 거목’, 긴즈버그는 ‘진보의 대모’로 불릴 만큼 미국 대법원의 상징적 인물들이다. 대법원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두 사람의 이름

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동성결혼,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사형제, 총기 규제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치열하게 맞섰다. 이념적으로 정반대에 서 있었기에 불구대전의 원수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법정 안에서는 자주 의견이 갈렸지만, 그 바깥에서는 서로를 높이 평가하며 깊은 존중을 나눴다. 스칼리아는 이렇게 회고했다. “내가 다수 의견문을 쓴 뒤 긴즈버그의 소수의견을 보면, 종종 내 것보다 훨씬 잘 다듬어지고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 감탄하곤 했어요.”

휴가철이면 함께 여행을 떠나고, 오페라를 관람하며, 새해 첫날엔 두 집안이 모여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특별한 우정을 나눈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음악과 법학을 모두 전공한 데릭 왕의 손에서 오페라 ‘스칼리아/긴즈버그’로 재탄생했다.

오페라는 신이 긴즈버그를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너는 왜 법정에서 늘 불평만 하고 반대만 하느냐?” 그러면서 신은 이 방엔 아무도(no man)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 순간, 유리창을 깨고 긴즈버그가 등장한다. “신이시여, 전

‘맨(man)’이 아니라 ‘우먼(woman)’인데요?”

이 대목에서 관중석은 폭소가 터진다. 긴즈버그가 여성 차별을 상징하는 ‘유리천장’을 뚫고 대법관이 되었던 사실과, 그녀와 스칼리아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유쾌하게 패러디한 장면이다.

브루클린 출신의 평범한 유대인 소녀는 세상의 불공정을 향해 의문을 던지며 끈질기게 저항해 왔다. 긴즈버그는 “나는 반대합니다”로 시작하는 소수의견을 끊임없이 내놓았다.

헌법 해석에 대한 입장도 두 사람은 극명히 달랐다. 긴즈버그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Document)’로 보았다. 반면,

스칼리아는 헌법은 원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오리지널리스트(Originalist)’였다. 출발점부터가 다르니 관점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

2016년, 스칼리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다. 대통령 임기는 고작 8년이지만, 대법관은 죽거나 스스로 물러나기 전까진 종신이다. 그의 죽음은 이 나라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깊은 울림을 남겼다.

“우리는 서로 달랐지만, 미국을 위한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이는 긴즈버그가 단팍을 떠나보내며 남긴 추모사다. 보수와 진보가 대화조차 거부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그의 죽음은 더욱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2020년, 긴즈버그가 별세하자 이번엔 스칼리아의 아들 크리스가 추모사를 낭독했다. “두 사람은 자주 의견이 달랐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이분들이 보여준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법 해석은 달랐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던 두 사람의 태도는 법의 공정성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다.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문리대 66)



“민주주의, 단순 개헌만으로 회복할 수 없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4·19 민주혁명 65주년을 기념해 포럼이 개최됐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와 한국정치연구소가 ‘개헌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을 주제로 연 이번 포럼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됐다.

이 행사는 4·19민주평화상운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열렸으며, 서울대 유홍림 총장과 김종섭 총동창회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종섭 회장은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포럼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1부에서는 권형기(정치85-89)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정훈(정치91-97)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선우(노문99-06) 전북대 정치학과 교수가 연 구발표를 맡아 각각 현재 한국 정치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권형기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유능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사례로 들어, 무능한 민주주의가 초래할 국정 마비와 개혁 실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국 역시 중임제 도입, 부통령제 신설, 선거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행정부의 정책 조정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한정훈 교수의 발표는 한국 정치개혁의 방향성과 유권자 선호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정치개혁은 어떤 정부 형태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단순히 제도를 변경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간 권력 조정이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교수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며, 그 원인을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결합에서 찾았다. 그는 미국과 한국 사례를 비교하며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대립과 교착을 심화시키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현실적인 제도개혁 방안으로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시했고,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을 실시,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정당체계를 다당제로 재편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서는 김진국(정치78-85) 전



지난 4월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19 민주혁명 65주년 기념 포럼.

4·19 민주혁명 65주년 기념 포럼 개최 유홍림 총장 · 김종섭 총동창회장 축사

중앙일보 대기자, 손병권(외교82-86) 중앙대 교수, 전종익(공법90-95)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전진영 박사(국회입법조사처)가 참여해 열린 논의를 이어갔다.

김진국 전 대기자는 “정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탄핵이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만으로는 문제 해결

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차원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만 정치적 교착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병권 교수는 양극화 완화와 정당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례대표제 기반의 의회제 실험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양당제 하에서는 야

당이 국정 협력 유인을 상실하게 되고, 여당은 강경 일변도의 통치를 강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종익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순히 헌법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실질적인 정치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진영 박사는 4년 중임제 개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경고하며, 헌정체제 내각제적 특성 개혁,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 존중,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를 포괄하는 입체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제도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사회적 규범과 시민문화의 변화를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현재 한국 정치의 교착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니라, 구조적 제도개혁과 시민사회 차원의 민주적 규범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대정신 품은 서울대 축제 60년

2025년 봄 축제는 ‘SNUFESTIVAL: Spring-kle’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관악캠퍼스 전역에서 펼쳐졌다. ‘봄’이라는 케이크를 완성하는 마지막 장식’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기획과 활발한 참여가 돋보였다.

서울대 축제는 단순한 청춘의 향연을 넘어, 시대정신과 대학문화의 궤적을 고스란히 담아낸 시간의 기록이다. 1960년대 학문 중심의 ‘교양제’에서 출발해, 유신시대의 억눌린 저항, 민주화 투쟁의 현장, 그리고 오늘날의 대중문화 축제로 이어지기까지. 서울대 축제는 곧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자 거울이었다.

서울대 축제의 기원은 1960년대 ‘5월제’ 혹은 ‘교양제’다. 전통문화 계승을 목표로 한 백일장, 서예전, 전통예술 공연이 중심이었다. 학과 별로 조용히 진행되는 소규모 행사들이 주를 이루며, 교양과 학문을 나누는 장이었다.

1970년대 축제는 ‘대동제’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유신체제 아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됐다. 그러나 학생들은 축제를 빌미로 시국 토론을 벌

이거나 은밀한 시위를 준비하며 저항의 불씨를 이어갔다.

1980년대는 ‘민중대동제’로, 민주화 운동의 중심 무대가 됐다. 정권 풍자극, 민중가요 공연 등 시대정신을 담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으며, 축제는 놀이에서 투쟁의 장으로 변모했다.

1990년대에는 연예인 공연, 거리 퍼레이드, 주점 등 문화행사 중심으로 바뀌었고, 외부인 참여가 늘며 개방성이 확대됐다. 그러나 상업화와 음주 중심의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2000년대부터는 유명 연예인 공연과 대형 무대가 축제의 상징이 됐다. SNS 생중계, 기업 부스 등도 등장하며 ‘관악

대동제’는 서울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서울대다운 공공성과 가치는 상대적으로 희미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0년대부터는 사회적 의제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늘었다. 성평등, 환경, 윤리소비 등과 관련된 부스가 운영됐고, 일부 단과대는 주점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2020~2021년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2022년부터 오프라인 축제가 서서히 복원됐다. 축제는 점점 ‘즐김’과 ‘연결’, ‘공감’을 함께 담는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83년 대동제 대학축전 모습.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故고광선 (공대 57)
뉴욕 - 조상근 (법대 69)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종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골드이사 (\$10,000이상)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김보연 (간호대 63)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동영 (사대 60)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흥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오인석 (법대 58)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시카고 - 조규승 (문리 72)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손재옥 (가정 77)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뉴욕 - 김현중 (공대 63)
북가주 - 강재호 (상대 57)
북가주 - 박순희 (의대 60)
북가주 - 남광순 (음대 64)
북가주 - 차재철 (의대 62)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워싱턴DC - 배성호 (의대 65)
워싱턴DC - 최재귀 (미대 63)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웅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자성 (의대 79)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나용화 (생과대 79)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경자 (사대 60)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재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의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균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故김중률 (사대 51)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오용호 (의대 66)
윤인숙 (간호대 63)
윤중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택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조대일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추재옥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故방은호 (약대 43)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흥기 (문리대 61)
박평일 (농대 69)
서취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박종성 (법대 53)
박진영 (공대 66)
손석보 (공대 68)
윤정옥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황동하 (의대 65)

시카고

故이윤모 (농대 57)
강영국 (수의대 67)
소진문 (치대 58)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216,970.58
(04/30/25 까지)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유현주 (문리 65)
진성호 (공대 64)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헌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옥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틀랜드

故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남가주

강경수 (법 58)
강동준 (법 59)
강윤희 (간 46)
강재호 (상 81)
강창만 (의 58)
강춘자 (간 69)
강호석 (상 81)
고남규 (의 68)
고석규 (치 65)
권기상 (대 72)
권봉성 (문 64)
김경 (문 63)
김경수 (사 58)
김경자 (미 60)
김건진 (문 62)
김동석 (음 64)
김영배 (미 61)
김갑균 (공 60)
김경 (문 63)
김경수 (치 54)
김경옥 (미 61)
김경자 (미 60)
김광은 (음 56)
김기형 (상 75)
김난영 (공 53)
김동산 (법 59)
김명수 (음 58)
김명자 (간 60)
김명희 (간)
김문영 (농 83)
김범수 (문 61)
김범연 (공 68)
김병만 (공 58)
김상찬 (문 65)
김석홍 (법 59)
김성호 (법 64)
김성환 (의 65)
김수향 (간 68)
김순철 (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미 (법 58)
김옥경 (상 60)
김용주 (간 69)
김용채 (문 61)
김원택 (공 65)
김일영 (의 65)
김지성 (의 79)
김재영 (농 62)
김정애 (간 69)
김정호 (음 59)
김종표 (법 58)
김준일 (공 62)
김창진 (공 77)
김태환 (의 58)
김태환 (문 78)
김태윤 (법 53)
김학철 (의 55)
김해숙 (미 68)
김홍록 (문 60)
김희창 (공 64)
나두섭 (의 66)
나승욱 (문 59)
나용화 (상 79)
노명호 (공 61)
노진걸 (사 70)
노경호 (문 59)
문병길 (문 61)
마동일 (의 57)
민일기 (약 69)
박명근 (상 63)
박민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원 (대 20)
박원준 (공 53)
박용 (문 89)
박우선 (공 57)
박은숙 (미 62)
박은희 (미 68)
박인수 (농 64)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임하 (치 56)
박자경 (상 60)
박종수 (수 58)
박찬호 (법 63)
박한영 (치)
박혜란 (미 70)
박혜원 (간 69)
박호현 (의 52)
박흥근 (공 64)
박희자 (음 68)
방명진 (문 73)
배동완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흥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서치원 (공 69)
선우원근 (공 66)
성낙호 (치 63)
성주경 (상 68)
손갑수 (약 59)
손기용 (의 55)
손학식 (공 61)
송명국 (문 81)

송태진 (공 79)
신건호 (법 63)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문 (공 65)
양승조 (음 70)
양은석 (음 70)
양태준 (상 56)
오길평 (치 61)
오선웅 (의 63)
오찬수 (약 57)
故 오형원 (의 53)
故 오석진 (상 61)
원종민 (약 57)
위종민 (공 64)
유덕영 (공 57)
유영자 (음 63)
유이창 (공 74)
유석환 (치 59)
윤태식 (의 61)
윤경민 (법 55)
윤영돈 (법 59)
윤석철 (상 60)
윤희성 (치 65)
이강훈 (치 65)
이건일 (의 62)
이경희 (인 83)
이기준 (법 54)
이명숙 (농 58)
이방기 (농 59)
이법식 (공 61)
이상무 (의 56)
이서희 (법 70)
이성숙 (공 56)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수 (상 60)
이영일 (문 53)
이영현 (간 70)
이영환 (공 64)
이원택 (의 65)
이원익 (문 73)
이익삼 (사 58)
이장길 (치 63)
이재권 (법 56)
이정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모 (간 69)
이준호 (상 65)
故 이종희 (공 53)
이진영 (의 65)
이찬용 (치 72)
이창무 (공 54)
이창신 (법 57)
이청광 (상 61)
이재진 (문 55)
이태영 (법 60)
이해영 (공 56)
이호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문빈 (상 58)
임석훈 (공 50)
임향균 (사 72)
장기열 (치 55)
장기창 (공 56)
장대욱 (음 57)
장동석 (문 66)
장문진 (상 63)
장병희 (인 86)
장소현 (미 65)
장용오 (약 57)
장원경 (미 73)
장윤희 (사 54)
장인숙 (간 70)
장정훈 (미 64)
장준호 (공 56)
전경태 (의 69)
전낙관 (사 60)
전범수 (농 71)
전상욱 (사 52)
전원일 (의 77)
전원일 (의 64)
정동주 (상 72)
정명자 (사 56)
정예현 (상 63)
정연용 (상 63)
정인환 (법 54)
정재형 (약)
정철룡 (의 61)
정현진 (간 68)
정형민 (문 71)
정혜령 (간 72)
정환 (공 64)
제영해 (상 71)
조경애 (음 64)
조동철 (사 68)
조선주 (간 69)
조영오 (약 57)
조재국 (문 66)
주선희 (문 66)
주정래 (상 65)
주충자 (간 61)
조태목 (사 60)
주정래 (상 65)
주훈 (음 69)
차승철 (법 54)
차중환 (사 54)

채규환 (법 69)
천동우 (공 63)
천원희 (가 71)
최복철 (공 70)
최영구 (상 61)
최영순 (간 69)
최영지 (미 62)
최인숙 (사 67)
임동규 (미 57)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서동 (의 61)
한성진 (상 53)
한원민 (의 59)
한희일 (공 62)
한정현 (치 55)
한홍택 (공 60)
합승록 (간 73)
현기웅 (문 64)
홍동식 (법 64)
홍성선 (약 72)
홍선일 (공 71)
홍수웅 (의 59)
황건홍 (공 55)
황만익 (사 59)
황현상 (의 55)

뉴욕

Ai Ja Lee
고순정 (간 69)
고애자 (음 57)
계동휘 (치 67)
곽선식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음 57)
권문웅 (미 61)
권영국 (상 60)
권영대 (공 69)
권정덕 (의 58)
금영천 (약 72)
김경일 (치 61)
김광현 (미 57)
김현우 (치 63)
김복영 (간 69)
김승호 (공 71)
김우영 (상 60)
김우현 (의 59)
김영무 (공 75)
김영진 (문 50)
김영철 (의 55)
김영희 (법 80)
김용연 (문 63)
김재술 (약 58)
김정일 (약 56)
김정희 (간 69)
김종원 (가 59)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하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암 (의 52)
김현중 (공 63)
남상래 (간 65)
문석민 (의 52)
민인기 (의 67)
리준무 (음 65)
박건이 (공 60)
박경원 (미 66)
박경희 (음 57)
박상수 (공 56)
박은규 (약 72)
박준재 (의 70)
변강준 (공 65)
변호련 (간 63)
배상규 (약 60)
서병선 (음 65)
서승렬 (공 59)
서의원 (공 66)
서충선 (사 57)
석창호 (의 66)
신종철 (의 59)
성기로 (약 57)
송갑수 (약 59)
손경택 (농 57)
손원배 (농 70)
손진태 (약 67)
송기인 (의 60)
송용섭 (농 63)
송승길 (대학원 69)
송은숙 (간 66)
신두식 (의 58)
신영남 (문 70)
신정자 (간 62)
안태홍 (상 65)
양명자 (사 63)
양성택 (상 66)
연봉원 (문 61)
오용호 (의 66)
오용환 (약 68)
에드워드 강 (문 60)
유규환 (사 60)
이상영 (상 55)
유인숙 (간 63)
유재식 (공 65)
유호근 (문 73)
육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윤영섭 (의 57)
윤종숙 (약 66)
윤철 (문 54)
윤현남 (공 64)
이강욱 (공 70)
이대영 (문 64)
이명준 (공 72)
이문봉 (미 76)
이상근 (상 84)
이상봉 (문 65)
이상무 (의 56)
이영숙 (간 60)
이영일 (의 60)
이성대 (약 63)
이유성 (사 57)
이재진 (의 59)
이준우 (음 65)
이준형 (음 48)
이종욱 (농 69)
이창호 (의 63)
이태안 (의 61)
이희만 (간 70)
이흥우 (공 50)
전병삼 (음 54)
정동성 (상 58)
정인용 (의 71)
정해민 (법 55)
정화웅 (사 61)
조남천 (사 59)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병선 (의 65)
조중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공 56)
최영태 (문 67)
최승웅 (의 61)
최정우 (사 63)
최준희 (의 58)
최창호 (약 63)
최한봉 (농 58)
최한용 (음 58)
최형우 (법 69)
한병용 (문 71)
한태진 (의 58)
함종국 (상 60)
허경력 (의 71)
허성일 (의 71)
허성행 (의 58)
허정열 (사 63)
홍정표 (음 67)

뉴잉글랜드

곽노균 (상 51)
김경일 (공 58)
김문수 (수 61)
김선희 (약 59)
김옥동 (사 58)
김형범 (문 57)
박영철 (농 64)
박종진 (의 56)
박종숙 (의 56)
송미자 (농 62)
오태요 (의 56)
윤상래 (수 62)
윤자강 (미 60)
이강원 (공 66)
이규진 (약 60)
이규하 (문 69)
이은주 (음 73)
이인인 (공 68)
임영호 (공 72)
장승복 (공 58)
정선주 (간 68)
정정록 (의 60)
故 주창준 (의 50)
최진민 (공 71)
한서동 (의 61)
현건섭 (공 55)

뉴저지

김영애 (사 56)

네바다

故 정성진 (상 59)
김상순 (상 67)
김영중 (치 66)
김용재 (의 60)
김택수 (의 57)
이학은 (약 57)

달라스

최희기 (공 61)

룩키마운틴스

이희상 (문 68)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문성인 (공 88)
민홍기
박현아 (공 88)
성욱지 (의 87)
성유진 (문 53)
송창원 (농 86)
이창재 (문 56)

주한수 (수 62)
황호숙 (사 65)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선희 (문 63)
김국화 (공 56)
김용호 (약)
김우신 (의 60)
김정화 (음 56)
김재식 (의 61)
남성희 (의 56)
민영기 (공 65)
박용희 (의 58)
오동환 (의 65)
오혁주 (사 88)
이상길 (의 65)
장병권 (공 61)
조병권 (공 64)
주영순 (간 64)
최병두 (의 53)
하계현 (공 64)

북가주

강재호 (상 57)
김교연 (문 72)
김성철 (공 82)
김윤길 (자 77)
김정복 (사 55)
김정희 (법 56)
김현왕 (공 64)
남광순 (음 64)
민병근 (공 65)
박서규 (법 56)
박성수 (공 59)
박영훈 (공 72)
박진영 (공 66)
송영훈 (상 57)
신규영 (문 58)
안호삼 (문 58)
윤성희 (사 58)
위창호 (의 67)
이관모 (공 55)
이성원 (공 65)
이성철 (약 57)
이장우 (문 72)
이정남 (공 65)
이창환 (공 56)
최용성 (의 55)
한국남 (공 57)
한영준 (사 60)

샌디에고

고경하 (공)
김인철 (약 70)
남창우 (상 58)
이문상 (공 62)
오계환 (공 64)
유현주 (문 65)
윤진수 (의 57)
이문상 (공 62)
이문하 (공 64)
이영신 (간 77)
임춘수 (의 57)
진성호 (공 64)

시카고

Ja H. Song
강영국 (수 67)
구경희 (의 59)
김갑준 (의 59)
김동희 (공 66)
김규호 (의 58)
김병운 (문 65)
김성일 (공 68)
김승주 (간 69)
김영우 (문 66)
김용주 (공 69)
김윤하 (공 66)
김정수 (문 69)
김정범 (상 69)
김현주 (문 61)
노영일 (의 62)
민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영일 (의 61)

박종희 (의 69)
박창욱 (공 56)
백운기 (문 56)
서상현 (의 65)
소진문 (치 58)
송재현 (의 45)
신석균 (문 54)
안영학 (문 57)
안신훈 (농 61)
한진자 (약 65)
유기정 (간 72)
육길원 (사 59)
윤경순 (사 61)
윤덕상 (치 62)
윤봉수 (간 69)
이경미 (미 69)
이건정 (공 69)
이덕수 (문 58)
이동균 (공 75)
이소희 (간 68)
이승자 (사 60)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이우성 (약 51)
故 이윤모 (농 57)
이준수 (공 76)
이종일 (의 65)
장윤일 (공 60)
전현학 (공 69)
전현일 (농 62)
조대현 (공 67)
조중행 (의 63)
최대환 (의 59)
최혜숙 (의 53)
최희수 (문 67)
한희일 (공 62)
한재은 (의 59)
홍건 (의 64)
홍성일 (약 57)
황소나
황치룡 (문 65)

아리조나

진명규 (공 70)

오레곤

김영자 (간 56)
박희진 (농 78)
최용성 (의 55)
한국남 (공 57)
한영준 (사 6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박훈 (공 74)
故 이영웅 (의 57)
유태영 (공 57)

워싱턴 DC

강길중 (약 69)
고의걸 (의 55)
곽민호 (문 65)
권기현 (사 53)
권철수 (의 68)
권오근 (상 58)
김기봉 (공 63)
김기환 (공 67)
김내도 (공 62)
김부근 (의 58)
김영란 (사 58)
김원호 (공 64)
김용환 (치 88)
김해식 (공 59)
김희주 (의 62)
나윤수 (사 57)
남욱현 (상 84)
남준일 (사 69)
박인영 (의 69)
박일영 (문 59)
박찬모 (공 54)
박홍우 (문 61)
배성호 (의 65)
백순 (법 58)

텍사스

김장환 (공 81)
유환 (농 56)
윤영주 (문 60)
조진태 (문 57)
전양공 (의 63)
전중희 (공 56)
진기주 (상 60)
최희기 (공 61)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박창익 (농 64)

이선구 (문 65)
이성배 (수 57)
이연주 (치 88)
이영덕 (사 61)
이윤주 (상 63)
이재승 (의 55)
이종국 (의 52)
이준영 (치 74)
이진상 (공 57)
이철수 (공 61)
임광록 (간 72)
전희순 (간 76)
정영자 (사 56)
정원자 (공 62)
정평희 (공 71)
조병선 (의 65)
전권희 (간)
최경수 (문 54)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한희생 (수 60)
한광수 (의 57)
홍영석 (공 58)

워싱턴주

권영희 (약 66)
김교선 (법 54)
김인배 (수 59)
김재훈 (공 72)
류성열 (공 72)
박진수 (의 57)
변동혜 (법 58)
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송 (상 57)
이명자 (간 74)
이연주 (치 88)
이희백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한 (농 58)

유타

김인기 (문 57)

조지아

김기준 (공 61)
김영서 (상 54)
김종구 (수 73)
김현희 (간 59)
남세현 (공 67)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성성모 (사 67)
소용덕 (의 57)
Steve Sung
오경호 (수 60)
윤영돈 (법 59)
은철수
이종석 (의 54)
임수암 (공 62)
임한용 (공 60)
정선휘 (공 65)
최덕순 (간 58)
최종진 (의 63)
한성수 (의 54)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 58)
정신호 (자 78)
최화진 (음 85)

커네티컷

라찬국 (의 57)
최창송 (의 58)

테네시

권준희 (가 87)
김경덕 (공 75)
서갑식 (공 70)
임효순 (간 71)

텍사스

김장환 (공 81)
유환 (농 56)
윤영주 (문 60)
조진태 (문 57)
전양공 (의 63)
전중희 (공 56)
진기주 (상 60)
최희기 (공 61)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박창익 (농 64)

안창현 (의 55)
엄태근 (의 56)
오석일 (의 64)
원인순 (문 71)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
정의철 (의 55)
하재청 (문 67)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경희 (가 71)
김국간 (치 64)
김구하 (상 63)
김정현 (농 64)
김정현 (문 58)
김현영 (수 58)
손재욱 (가 77)
송성균 (공 50)
서의원 (공 66)
서중민 (공 64)
성기호 (상 59)
성정호 (약 59)
신선자 (사 60)
심영석 (공 76)
안세현 (의 62)
엄종철 (미 61)
오진석 (치 56)
유영걸 (의 70)
윤경숙 (문 59)
윤정나 (음 57)
이규호 (공 56)
이문호 (공 53)
이성숙 (상 74)
이수경 (자 81)
이지춘 (미 57)
이홍일 (상 70)
장학량 (약 56)
조화연 (음 64)
전무식 (수 61)
전방남 (상 73)
정덕준 (상 63)
정학량 (약 56)
정훈택 (상 61)
조정현 (수 58)
주기록 (수 68)
지훈민 (공 61)
최종무 (상 63)
최현태 (문 62)
한동휘 (문 57)
한수웅 (의 55)
한용오 (보 70)

하와이

김달욱 (사 55)
김용수 (농 75)
김윤균 (공 63)
안은식 (문 55)
이재형 (수 61)
최경윤 (사 51)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김경숙 (가 70)
김재경 (공 64)
김태찬 (음 80)
김시근 (공 72)
배규영 (사 68)
오명순 (상 69)
이광자 (간 63)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치현 (약 77)
임소연 (음 91)
정민재 (농 71)
조원지 (문 63)
호민선 (상 59)

휴스턴

김영일 (의 55)
박석규 (간 59)
박유미 (약 62)
박태우 (공 64)
이길영 (문 59)
이윤성 (수 81)
이은애 (음 81)
이학호 (수 59)
진기주 (상 60)
최관일 (공 54)
최성호 (문 58)
최용현 (의 53)

룩키마운틴스

송요준 (의 64)
전남인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김병연 (공 68)	500
김성환 (의 65)	300
노진걸 (사 70)	2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7,000
박하영 (치)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홍 (문 53)	1,000
손기용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이재진 (문 55)	200
임낙균 (약 64)	21,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만익 (사 59)	200
황현상 (의 55)	100
H & Y Lee	1,000

뉴욕	
곽선섭 (공 61)	400
신응남 (농 70)	700
김광현 (미 57)	200
김복영 (간 69)	50
김해임 (의 52)	100
리준무 (음 65)	400
문석면 (의 52)	200
우영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형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2,000
주창춘 (의)	400
박종승 (의 56)	200

네바다	
김상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500

워싱턴DC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4,000
백순(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최재귀 (미 63)	1,000

시카고	
강영국 (수 67)	200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20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황효숙 (사 65)	2,000

조지아	
이종석 (의 54)	200
성성모 (사 67)	200
최종진 (의 63)	500
한성수 (의 54)	200

커네티컷	
최창승 (의 58)	2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400

필라델피아	
(고)전희근 (의 55)	2,000
최창승 (의 52)	500
서종민 (공 64)	200
손재욱 (가 77)	500
이순희 (사)	3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400
오석일 (의 64)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2,0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 81)	48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720
하기환 (공 66)	480
김경무 (공 69)	480
김원탁 (공 65)	480
김일영 (의 65)	480
김자성 (의 79)	240
서동영 (사 60)	480
신동국 (수 76)	480
아주투어	500
이경희 (인 83)	48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종표 (간 69)	480
이태영 (법 60)	480
최우식(약 66)	480

뉴욕	
김승호 (공 71)	240
김치갑 (의 73)	480
박종호 (의 79)	240
신응남 (농 70)	48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48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4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 53)	300
홍성선 (약 72)	100
이건일 (의 62)	1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400

시카고	
김현주 (문 61)	1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강길중 (약 69)	500

테네시	
권준희 (가 87)	15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20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5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3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나눔기금

남가주	
주선희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100
신응남 (농 70)	300

펜실베이니아	
신익석 (공 53)	5,0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SNUAA Scholar Program

(본국)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김종섭 총동창회 회장	10,000
(상 65)	

남가주	
노명호 (공 61)	10,000

미시간	
고광국 (공 54)/	200,000
고국학 (공 56)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시카고	
이용락 (공 48)	3,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1,400
김자성 (의 79)	1,5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25,000
박수경 (생 84)	6,3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3,000
하기환 (공 66)	2,500
홍훈정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이전구 (농 60)	3,0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5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워싱턴 DC	
권기현 (사 53)	300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인명록비

뉴욕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관악연대 활성화 보조 후원금 (23-24년)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2,500

휴스턴	
김정환 (공 80)	2,500

관악연대 활성화 보조 후원금 (24-25년)

북가주	
김범섭 (공 79)	2,500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2,500

시카고	
조규승 (문 72)	2,500

조지아	
최화진 (음 86)	2,500

나눔 장학금 보조금

워싱턴 DC	
박종희 (의 69/ 세종문화회)	3,000

필라델피아	
서종민 (공 64/ 정직장학금)	2,000

지부 장학금 후원 (23-24년)

미시간	
이광진 (공 81)	2,000

미네소타	
윤정식 (농 86)	2,000

뉴욕	
김정필 (공 71)	2,500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2,000

벤쿠버	
성영주 (간 86)	2,000

워싱턴주	
임현민 (공 84)	2,000

워싱턴 DC	
정세근 (자 82)	2,000

샌디에고	
송오석 (공 91)	2,000

하트랜드	
임소연 (음 91)	2,000

휴스턴	
김정환 (공 80)	2,000

지부 장학금 후원 (24-25년)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2,000

미시간	
이광진 (공 81)	2,000

북가주	
김범섭 (공 79)	2,000

북텍사스	
이선애 (경 85)	2,000

샌디에고	
박상호 (치 80)	2,000

시카고	
조규승 (문 72)	2,000

워싱턴주	
임현민 (공 84)	2,000

조지아	
최화진 (음 86)	1,000

커네티컷	
박성훈 (자 91)	2,000

필라델피아	
심희진 (음 90)	2,000

하트랜드	
이주현 (미 92)	2,000

휴스턴	
김정환 (공 80)	2,000

지부분담금 (23-24년)

남가주	
임춘택 (상 68)	3,000

북가주	
최경선 (농 65)	1,300

뉴욕	
연영재 (공 74)	3,000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1,000

북텍사스	
이선애 (경 85)	550

록키마운틴스	
최문기 (공 73)	200

미네소타	
윤정식 (농 86)	550

샌디에고	
송오석 (공 91)	550

시카고	
조규승 (문 72)	2,400

애리조나	
정인주 (농 82)	200

오레곤	
박희진 (농 78)	300

오하이오	
이성우 (상 72)	300

워싱턴 DC	
정세근 (자 82)	2,000

워싱턴주	
임현민 (공 84)	800

조지아	
배혜영 (음 79)	800

캐롤라이나	
정신호 (자 78)	200

필라델피아	
심희진 (음 90)	1,000

플로리다	
윤기향 (법 65)	300

하와이	
성낙길 (문 77)	300

하트랜드	
임소연 (음 91)	550

휴스턴	
김정환 (공 80)	550

지부분담금 (24-25년)

남가주	
채규환 (법 69)	3,000

북가주	
김범섭 (공 79)	1,300

뉴욕	
김정필 (공 71)	3,000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1,000

북텍사스	
이선애 (경 85)	550

미네소타	
문성인 (공 88)	550

미시간	
이광진 (공 81)	300

샌디에고	
박상호 (치 80)	550

시카고	
정성일 (공 86)	2,400

워싱턴 DC	
남옥현 (상 84)	2,000

워싱턴주	
이정관 (농 83)	800

조지아	
최화진 (음 86)	800

커네티컷	
박성훈 (자 91)	300

필라델피아	
심희진 (음 90)	1,000

하트랜드	
이주현 (미 92)	550

휴스턴	
김정환 (공 80)	550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2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희 (치대 81)
T: 213-365-1008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익규 (상대 82)
T : 201-978-7055
120 Sylvan Ave #303,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강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URI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아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213-388-40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 \$200 ☐ \$500 ☐ \$1,000 ☐ \$_____	☐ \$100 (2023/7~2024/6, 1년) ☐ \$100 (2024/7~2025/6, 1년) ☐ \$200 (2023/7~2025/6, 2년)	☐ \$3,000 이상 ☐ \$5,000 실버 ☐ \$10,000 골드 ☐ \$_____	☐ \$240 (2023/7월~2024/6월, 1년/1차) ☐ \$240 (2024/7월~2025/6월, 1년/2차) ☐ \$480 (2023/7월~2025/6월, 2년) ☐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 SNUAA Scholars Program ☐ 장학기금 ☐ 관악연대 후원금 ☐ Charity Fund (나눔) ☐ Brain Network 후원금 ☐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Total: \$ _____		
☐ Full Size Color \$1,500 ☐ Full Size Black \$1,000 ☐ 1/3 Size Color \$400	☐ \$500 (1년) ☐ \$1,000 (1년)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중섭(문)
고문: 이영일(문) 이채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효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 나용화(생)/위원: 최경석(사),박문수(공)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백옥자(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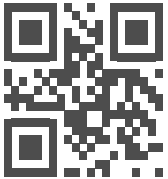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례(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워싱턴DC)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충택 (공)
위원: 고 김영구(공),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나눔위원회
위원장: 이성숙(가)
위원: 정태광(공), 유미영(음)

감사: 박평일(농)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5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채규황**(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차기 회장 **양수진**(간호대 80) T: (714)335-2148
sujinyang2011@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박상호(치대 80)T: (516)776-0449
nomacast@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998-4150
jklee234@yahoo.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룩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hok@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송태영(자연대 84)
T: (778)866-8312
chris.van.bc@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iyo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정성일**(공대 86)T: (301)395-7285
jeong05@gmail.com
차기 회장 **이동균**(공대 75)T: (847)644-4807
dlee1917@yahoo.com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 (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남옥현(경영대 84)
T: (703)898-6429
minamusa@yahoo.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 jung@duke.edu

아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c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www.duoamerica.net

듀오서머 스피드이벤트

2025년 8월 2일 (토) 4:30~8:00 PM

LA:213-383-2525 (Jenny Kim)

박수경 (소비자학과 84)



www.yongsusanla.com

龍水山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김병연 (공대 68)

작가의 집 아트홀

House of Writers, Art Hall

T: 213-380-3000 |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BIG SALE
10 WINDOWS
DUAL GLASS /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LIFETIME WARRANTY
한인최초의 창문제조공장
NFRC MEMBER
(APPLIED FOR CERTIFICATION)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류원 (신문대학원 74)

WOODEN
나무창문도 만듭니다

SR WINDOW LLC
901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C. 213-700-4119 / O. 323-232-1700 Fax 323-232-4700

최고급 이중창문 3/4 DUAL GLASS
이중유리에 들어가는 Spacer, Screen Frame, Insulated Silicone 등 모든 부속은 미국 최대 Hardware maker인 C.R. Laurence Co. 제품입니다. SR의 PROFILE은 한국 LG 화학이 개발한 무공해 첨단소재를 사용했고 PATIO DOOR의 PROFILE은 독일제.

WINDOW PRODUCTION PERSONNEL WILL INSTALL IT. IT ALSO SOLVES SENSITIVE AND DELICATE PARTS. 윈도우 제작 직원들이 설치합니다. 시공에도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J.S. LEE / SUPERVISOR / TECHNICAL COLLEGE OF HANYANG UNIV. KOREA, EXCELLENT TECHNOLOGY EVALUATION AWARD(NICE) 한양공대 / NICE 선정 최우수 기술평가

JUAN SUAREZ / MANAGER / 20 YEARS EXPERIENCED WINDOW PRODUCT

WON RYU / CEO / PH.D / FORME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FOUNDED SR WINDOW 19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